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코스피 5137.89 (+70.45)
코스닥 684.81 (+22.00)
금리(국고채 3년) 3.720 (-0.016)
환율(원·달러) 1330.0 (-3.0) 〈19일〉

metroseoul.co.kr
metro®
Economy

제6039호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하나금융그룹

"AI 도입시 속도 보다 '방향' 중요 업무구조, AI 중심 재설계" 한 뜻

메트로경제, 뉴테크놀로지 포럼

AI 기술발전 기업 대응전략 논의
초기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 강조

기업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과를 창출하려면 도입 속도보다 활용 전략과 조직 내 정착이 중요하다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였다.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은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을 개최했다.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 전환(AX)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기업의 AI 도입 과제를 짚고, 업종별 활용 전략과 실질적인 적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기사 L7·L8〉

이날 행사는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이우용 한국SW·ICT총연합회 회장의 축사로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장규 메트로경제 대표이사가 AX 시대의 산업적 의미와 포럼 개최 취지를 담은 개회사로 행사의 방향을 제시했다.

기조강연은 이경전 경희대 교수 겸 한국AI서비스학회장이 맡아 AX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와 기업의 대응 방향을 짚으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시기에 AI가 개인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 주제별 강연에는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이 차례로 나서 각 분야별 현황을 진단했다.

강사들은 AI 기술의 발전이 산업 현장에 가져온 변화와 이에 따른 기업의 대응 전략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특히 AI를 실제 사업과 업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조직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네 연사의 강연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속도'보다 '방향'이었다. 연사들은 기업들이 AI를 도입할 때 경제성과 업무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고, 기존 업무 구조를 AI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AI를 도입하거나 업무 시간을 줄이는 데 그쳐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투자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조직과 업무 방식도 함께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감수하며 업무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자세가 강조됐다. 전문가들은 초기 성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를 조직에 정착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이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포럼은 산업별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AX 전략 방안을 공유했다. /최규춘 기자 ch9720@



미국·중국·러시아 정상이 19일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사상 첫 3자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오른쪽부터)이 이날 오후 선전 치린산장에서 만나 회담에 들어가기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중·러 첫 3자 정상회의 '핵무기 감축' 韓 영향 주목

美 트럼프, 선거 패배의 돌파구로
中 핵 군축협상, 이란 해법 찾는 듯
'우크라 침공' 고립 러, 국제 복귀

19일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제33차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역사적인 첫 3자 정상회담을 갖고 주요 세계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최대 의제가 된 '핵무기 감축' 관련 논의도 이뤄져 향후 한반도 비핵화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집중된다.

미국·중국·러시아 국가 지도자의 사상 첫 '3국 정상회담'이 이날 오후 중국 선전에서 열렸다. 외신들은 핵무기 감축과 이란과 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이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예측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로 정치적 돌파구가 필요하자 중국을 핵 군축 협상에 끌어들이고 이란 문제에서도 해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을 앞두고 폭스뉴스에 "중·러를 동시에 만나는 것은 (미국에) 전략적 이점이 있다"며 "중·러 정상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나라가 과거 본래 적대적인 관계였다며 "협력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 논의를 두고 "전 세계 핵무기 비축량에서 러시아가 2위이고 중국이 3위다. 중국과 큰 격차가 있지만 핵 무기 개발에 열중하고 있어서 10년 만에 격차를 줄일 수도 있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양자회담에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수송을 보장하고 이란의 핵 무기 보유를 저지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3자 정상회담은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으로부터 고립됐던 러시아의 성공적인 국제무대 복귀를 위한 판을 깔아주게 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외신들은 여전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를 공습하고 러시아가 조건 없는 휴전안을 거부하고 있음에도 푸틴 대통령은 이번 회담으로 국제 무대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이번 3자 회담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전후 세계질서를 논의한 얄타 회담에 빗대 '제2의 얄타회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꼭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관측도 많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동안 3개국 정상들과 정상회담, 회동, 대화를 나누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정부의 입장을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중국 선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문제는 다뤄질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는 게 저희가 지금까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요 이슈로 다뤄질 것 같이 보이지는 않고, 주요 이슈는 아무래도 핵 군축 문제라든가 이란, 우크라이나가 있을 수 있고, 지역 정세 중에서 다뤄질 수도 있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韓 수출 1조달러 돌파… 獨·美·中 이어 세계 4번째

산업부, 8월 누적 수출 증가율 53%
빅테크 인공지능 투자확대가 견인

대한민국이 연간 수출 1조 달러 시대를 열었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를 처음 달성한 지 62년 만에 이뤄낸 대기록이자, 독일·미국·중국에 이은 세계 4번째 쾌거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19일 오후 2시 9분 38초 기준 연간 누계 수출액이 잠정 1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7093억 달러) 고지를 밟은 지 불과 1년 만에 앞자리를 바꿨다. 〈 관련기사 3면〉

특히 이번 기록은 2006~2007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한 기존 3개국 이후 19년 만에 나온 성과다.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교역 둔화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올해 1~8월 기준 주요 수출국 중 가장 높은 수출 증가율(+52.9%)을 기록하며 저력을 입증했다.

수출 성장은 글로벌 빅테크의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견인했다. AI 데이터센터 수요 폭증으로 반도체(1~10월 3968억 달러)와 컴퓨터(451억 달러)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다. 여기에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제품(575억 달러) 선전과 K-뷰티(화장품 124억 달러)·K-푸드(농수산식품 108억 달러)·의약품 등 유망 소비재의 약진이 더해지며 전체 수출의 20대 주력 품목 중 16개 품목이 증가세를 보였다.

수출 저변도 한층 넓어졌다. 미국(+77%), 중국(+88%), 아세안(+69%) 등 주력 시장은 물론 인도(+38%), 중남미(+10%) 등 신흥시장까지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수출이 늘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1076억 달러)과 중견기업(1~3분기 1037억 달러) 모두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경신하며 수출 생태계의 허리를 탄탄히 받쳤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세계에서 단 4개국만이 달성한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다"며 "수출 1조 달러 달성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수출 호조의 온기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메트로 한줄뉴스



▲국힘 "특검, 추경호 항소포기해야…조작기소 특검법에 헌법소원 등 모든 수단 동원"
▲무죄 추경호 대구시장 "24시간 시정과 시민 행복 위해 돌아갈 것" /사진 뉴시스

▲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국힘 김장겸, '국가시험장 내 전파차단장치 사용' 전파법 개정안 발의

▲국토부, 전북 동부 산간권 제설대책 점검…"대응 빈틈없어야"
▲우체국 2000여 곳 한파쉼터로 개방…편의점·복지관도 활용

최태원 "AI시대, 이사회 독립적 판단 강화로 신뢰 확보"

SK 디렉터스 서밋 2026

그룹 비전·계열사 사업전략 연계
자본배분·이사회 효율운영 논의
현직이사 넘어 퇴임이사 소통 확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 아카디아 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에서 SK수펙스추구협의회 멤버사 독립이사들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앞줄 왼쪽 열두번째)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그룹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 사업 확대에 맞춰 계열사 이사회의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했다. AI 중심의 사업구조 재편 과정에서 이사회 중심 경영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7일 서울 광진구 워커힐에서 열린 'SK 디렉터스 서밋 2026'에서 AI 시대 이사회의 역할과 경영전략을 논의했다.

최 회장은 이날 SK의 AI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시장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각 계열사 이사회가 주주가치 극대화 관점에서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사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멤버사 독립이사 51명과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정재헌 거버넌스위원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했다. 이들은 그룹 비전과 계열사별 사업전략의 연계, 자본 배분 원칙, 이사회 운영 효율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SK그룹이 AI를 중심으로 사업구조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그룹 차원의 성장전략을 추진하면서도 개별 계열사의 투자 판단과 자본 배분에서는 주주이익을 고려한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SK그룹은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에너지 등 주요 사업을 연계하는 'AI 플라이휠' 전략을 추진하는 한편 이사회 중심 경영체제도 강화하고 있다.

2021년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스토리'를 발표한 데 이어 2022년부터 디렉터스 서밋을 정례화했다. 이후 이사회의 경영진 견제와 업무 감독 기능을 단계적으로 강화했으며 현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참여 상장사들은 독립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다.

채은미 SKC 이사회 의장은 "SK의 거버넌스는 이사회의 감독 의무를 경영 수립 단계부터 이어지는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이행하도록 고도화돼 왔다"며 독립이사들에게 그룹의 경영 환경 변화와 대응 방안을 공유하는 자리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최 회장은 현직 독립이사뿐 아니라 퇴임 이사들과의 소통도 확대했다. SK그룹은 전일 서울 종로구 선혜원에서 퇴임 독립이사 41명이 참석한 가운데 첫 'SK 거버넌스 데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5년간 추진한 지배구조 개선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했다. 특히 퇴임 이사들이 축적한 경영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외부의 시각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는 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최 회장은 "이사들과 함께 만든 이사회 중심 경영을 바탕으로 SK 거버넌스를 한 단계 더 높이겠다"며 퇴임 이사들에게 조언자이자 외부의 기대와 우려를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당부했다.

염재호 전 SK㈜ 이사회 의장은 "지난 5년간 SK는 이사회 중심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훌륭한 성장을 이뤄왔다"며 "앞으로도 SK의 장기적 성장과 주주이익에 도움이 될 모범적인 거버넌스 체계를 유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내년 근원물가 2.5%, 소비회복 더뎌… 기준금리 변수

금통위, 배당·성과급에 소득 상승
내년 하반기 소비 3.1% 상승 전망
26일 금리 결정·수정 전망 발표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2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소비 회복 속도가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반도체 기업의 배당과 성과급이 가계 지출로 이어지면, 내년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물가 오름세가 둔화해도 근원물가 상승률은 더디게 낮아질 수 있어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18일 발표한 '202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상반기 2.9%에서 하반기 1.9%로 1.0%포인트(p) 낮아진다. 두바이유 기준 원유 도입단가가 올해 배럴당 94달러에서 내년 86달러 안팎으로 떨어진다는 전제다. KDI 전망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은의 물가안정목표인 2% 아래로 내려온다.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 상승률은 같은 기간 2.6%에서 2.4%로 0.2%p 낮아지는 데 그친다. 내년 연간 전망치는 소비자물가 2.4%, 근원물가 2.5%다. KDI는 유가 하락으로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가운데 소비 회복에 따른 수요 압력이 근원물가 둔화 속도를 늦출 것으로 봤다.

◆ 배당·성과급이 가계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올해 3분기에는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보다 1.0% 늘었지만 민간소비는 0.2% 줄었다. 한은은 완성차 업체 파업과 주식 거래 감소의 영향을 걷어내면 민간소비가 0.4% 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동원 한은 경제통계2국장은 지난달 27일 3분기 GDP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부터 반도체 기업의 현금배당이 지급되고, 내년 1분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면서 우리나라 전체 가계소득을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KDI는 이달 12일 공개한 분석에서 반도체 가격 상승의 효과가 민간소비에 나타나기까지 약 1년이 걸리는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반도체 가격 상승이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약 0.6%p 높일 것으로 봤다. 최근 경제전망에선 내년 민간소비가 전년 동기 대비 상반기 1.6%, 하반기 3.1% 늘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소득이 늘어난 가계의 지출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 "수요 측 상방 압력이 내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10월 금통위도 따진 소비 파급 속도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7월과 8월 연이어 기준금리를 올린 뒤 지난달 22일 연 3.00%로 만장일치 동결했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당시 앞선 인상의 효과와 3분기 GDP, 10월 물가를 더 살펴보겠다고 했다. 이후 발표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9월보다 0.1%p 낮아졌고, 근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2.8%였다.

10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위원은 반도체 수출 호조가 민간소비에 얼마나 빠르고 강하게 파급되느냐가 통화정책의 중요한 전제라고 봤다. 성과급과 배당의 혜택은 일부 가계에 집중되고, 금리가 오르면 이자 부담은 더 폭넓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KDI는 소비 회복으로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당분간 긴축 기조 유지를 권고했다.

한은은 오는 2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수정 경제전망을 발표한다. /김주형 기자 gh471@

환율 10% 하락시 가구당 소비 연간 16만5000원 절감

한은,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담완화 효과 저소득층이 더 커

원화 강세로 원·달러 환율이 10% 하락하면 가구당 생활비가 1년간 평균 16만5000원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화 절상이 수출기업의 채산성에는 부담을 주지만, 수입원가와 생활비를 낮춰 내수기업의 경영여건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19일 한국은행 조사국이 발표한 BOK 이슈노트 '원화절상의 경제적 영향: 부문별 파급 차별화와 양극화 완화 가능성'에 따르면 환율이 10% 하락할 경우 기존 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출은 1년간 가구당 약 16만5000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소비지출의 0.47%, 처분가능소득의 0.32%에 해당하는 규모다.

소득 수준별로는 저소득층의 상대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컸다. 처분가능소득 대비 생활비 절감률은 소득 하위 20%인 1분위가 0.78%로, 상위 20%인 5분위의 0.24%를 웃돌았다. 다만 절감액 자체는 소비 규모가 큰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1년간 절감액은 1분위 8만8000원, 5분위 26만3000원으로 추정됐다.

이 같은 차이는 저소득층이 환율 하락의 가격 반영 효과가 큰 식료품과 에너지에 상대적으로 많은 돈을 쓰고, 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기 때문이다. 전체 가계의 생활비 절감액 가운데 에너지와 식료품·비주류음료,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합계 약 78%였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사업소득 개선 가능성도 제시됐다. 저소득 자영업자는 음식점업과 육상운송업 등 식재료·연료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 상대적으로 많이 종사한다. 수입 중간재 가격이 낮아지면 운영비용이 줄어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저소득층은 추가 소득을 소비로 연결하는 비율도 높아 생활비 절감과 사업소득 개선이 민간소비를 뒷받침할 수 있다고 한국은행 연구진은 평가했다.

기업 부문에서는 내수기업의 수익성·투자·매출 개선 효과가 두드러졌다. 2002~2025년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원화가 10% 절상될 때 내수기업은 같은 업종의 수출기업과 비교해 영업이익률 개선 효과가 0.5%포인트(p) 더 큰 것으로 추정됐다. /김주형 기자

앤트로픽, 공모가 83弗
전체 규모 약 813억弗
스페이스X 기업공개 조달액 넘어

인공지능(AI) 모델 '클로드' 개발사 앤트로픽이 공모가를 희망 범위보다 높은 주당 83달러로 확정했다. 공모 주식 수도 당초 계획보다 늘어나면서, 별도로 예정된 사모 배정까지 합친 회사의 자금 조달 규모는 1000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이다.

19일 앤트로픽에 따르면 회사는 주당 70~78달러였던 희망 공모가 범위의 상단보다 5달러 높은 83달러에 공모가를 책정했다. 공모 주식은 총 9억8000만주로, 앞서 증권신고서에 제시한 8억2500만주보다 1억5500만주 늘었다.

전체 공모 규모는 약 813억달러다. 이 가운데 앤트로픽이 새로 발행하는 약 9억5635만주의 매각 대금은 약 794억달러다. 나머지 약 2365만주는 기존 주주가 매각하는 물량으로, 해당 대금은 회사에 유입되지 않는다.

앤트로픽의 상장 당시 기업가치는 스페이스X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다만 이번 상장 과정에서 회사가 조달할 자금은 공모 신주 매각 대금 약 794억달러와 별도 사모 배정 260억달러를 합쳐 약 1054억달러로 예상된다. 사모 배정이 예정대로 마무리되면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 조달액 862억달러를 넘어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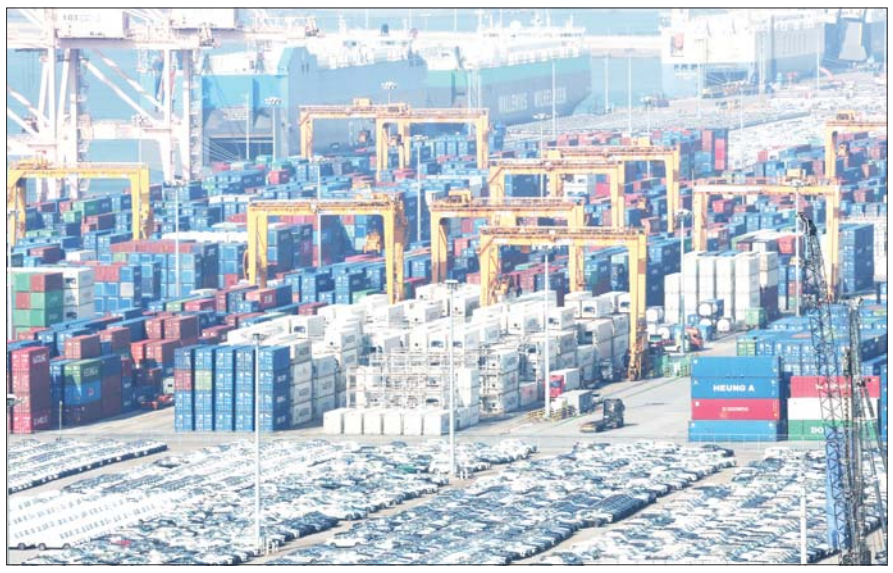
앤트로픽은 미국 현지시간 19일 나스닥 시장에서 종목코드 'ANT'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상장으로 확보하는 자금은 AI 모델 운영에 필요한 연산 인프라와 인력 확보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빠른 매출 성장과 함께 대규모 투자 부담도 시장의 평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앤트로픽이 증권 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연 환산 매출액은 810억달러로, 한 달 전보다 100억달러 증가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경공업서 첨단산업으로… 반도체 이을 성장동력 찾아야”

수출 신화 그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 1만배 성장
기술력으로 자원·내수 한계 극복
반도체·대기업 쏠림 해소가 관건
소부장 상생·지역 일자리 창출
수출 다변화로 지속 성장 모색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넘어섰다. 독일,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이며 새로운 ‘1조 달러 수출국’이 나온 것은 2007년 중국 이후 19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 16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한국 경제가 연간 수출 1조 달러라는 역사적 고지에 올라서며 세계 무역사의 새 페이지를 썼다. 1964년 수출 1억 달러 달성 이후 62년 만에 수출 규모가 정확히 1만 배로 팽창했다. 1948년 수출 통계 집계 이후 올해 1~8월까지 한국의 수출 증가율은 3만6509배로, 전 세계 주요 수출국 중 압도적 1위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는 불리한 조건을 딛고 일궈낸 기적이라는 점에서 평가가 남다르다. 앞서 1조 달러를 돌파한 독일(2006년), 미국(2006년), 중국(2007년)은 풍부한 부존자원이나 거대한 내수 시장, 광활한 영토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인구 5160만 명, 명목 국내총생산(GDP) 1조8820억 달러, 수입액 중 에너지 비중이 19.0%에 달하는 자원 빈국이라는 한계를 기술력과 산업 경쟁력만으로 돌파했다. 달성 시점 역시 2000년대 중반 세계화 확산기에 1조 달러를 달성한 기존 국가들과 달리, 미·중 무역분쟁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세계무역 분절화’ 시기에 이뤄낸 값진 성적표다.

수출의 질적 변화도 뚜렷하다. 수출 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했던 1977년 당시 한국의 주력 수출품은 선박을 제외하면 냉동어류, 합판, 의류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반세기 동안 산업 고도화를 거듭한 결과, 올해는 반도체(전체 수출의 32.6%)와 컴퓨터 부품(9.5%), 석유제품(6.1%), 승용차(6.0%) 등 첨단 제조업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WTO)가 지정한 ‘AI 구현 제품’의 글로벌 핵심 공급기지로 도약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수출 성장의 온기가 특정 대기업이나 수도권에 편중되지 않고 확산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올해 1~10월 비수도권의 수출 성장 기여율은 44.9%로 2024년(23.2%) 대비 두 배 가까이 뛰며 지역 균형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

다만 강감찬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은 전날(18일) 백브리핑에서 “수출 1조 달러 달성은 기쁘지만, ‘반도체의 축복이 저주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크다”며 “호실적에 취하지 말고 대기업·반도체 쏠림과 양극화, 통상 리스크를 냉정하게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반도체·석유제품 등 특정 주력 품목의 단가 변동성과 대기업 쏠림 현상에 따른 체감 경기 격차를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

반도체와 석유화학·석유제품은 단가 상승과 공급망 구조 특성상 대기업 편중이 두드러지고 고용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작아 국민 체감도가 낮을 수 있다. 강 실장은 “공급망이 긴 조선·자동차의 물량 확대와 고부가가치화, 용인 트리니티 팹 등 국내 투자를 통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상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짚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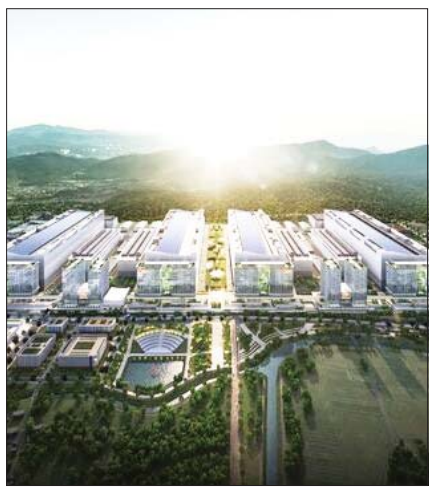
수입 관리와 통상 외교의 정교화도 핵심 과제로 꼽힌다. 1~10월 수입이 전년 대비 21% 늘어난 6351억 달러를 기록한 가운데, 원유·나프타·핵심광물·반도체 장비 등 안정적인 수입이 뒷받침됐기에 수출 확대도 가능했다. 강 실장은 “수출 1조 달러의 한 축은 안정적 수입”이라며 “희토류·첨단장비 수출통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한편, 대미 무역흑자 확대 등 통상 압박에 대응해 전략적 해외 투자와 국내 ‘마더팩토리(R&D·핵심 생산기지)’ 유지·강화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 전망 역시 낙관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도체 단가·유가 안정화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가능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철강·석화 등 공급과잉 품목의 경쟁 심화가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춘 전력기자재·비철금속 등 연관 품목과 K-뷰티·식품 등 소비재, 방산·원전·가스터빈 및 서비스·지재권 수출까지 외연을 넓혀 수출 1조 달러 시대의 지속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수출 1조달러 시대… SK하이닉스, 소부장과 반도체 동반성장

HBM 성공 기반으로 협력 확대
용인 공동 기술검증 시설 구축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



SK하이닉스가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동 테스트 시설 ‘트리니티 팹’ 구축 등 협력사 지원을 강화한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SK하이닉스

우리나라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1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SK하이닉스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과의 협력 확대에 나섰다.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협력 경험을 바탕으로 차세대 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까지 지원하는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19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올해 1월~10월 국내 반도체 수출액은 3983억9000만 달러로 전체 수출의 42.8%를 차지했다.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반도체가 국가 수출 성장을 주도했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15.6%에서 지난해 24.4%로 확대된 데 이어 올해 40%를 넘어섰다. 지난 10월에는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57.5% 증가하며 역대 10월 중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반도체 수출 확대의 주요 동력으로는 HBM이 꼽힌다. SK하이닉스는 2013년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했지만 당시에는 수요가 제한적이고 생산 비용이 높아 시장 확대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럼에도 회사는 연구개발을 이어가며 독자적인 MR-MUF 공정으로 방열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했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생성형 AI 확산과 맞물려 성과로 이어졌다.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급증하자 SK하이닉스는 앞서 확보한 HBM3 양산 역량을 바탕으로 시장 확대에 대응했다. 이후 HBM3E와 HBM4를 거쳐 HBM4E 샘플 공급까지 이어가며 제품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 개발 범위도 HBM을 넘어 확대됐다. SK하이닉스는 10나노급 6세대(1c) DDR5와 321단 낸드플래시를 개발한 데 이어 올해 AI 서버용 저전력 D램 모듈인 SOCAMM2 양산에 나섰다.

회사의 기술 경쟁력 확보에는 국내 소부장 기업과의 협력이 뒷받침됐다. HBM은 여러 개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구조로, 제조 과정에서 정밀한 공정 제어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협력사의 기술력도 제품 성능과 생산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공동 테스트 시설인 ‘트리니티 팹(Trinity Fab)’을 구축하고 있다. 약 1000평 규모의 클린룸에 총 55대의 장비를 갖추고 2027년 5월 가동할 예정이다.

시설 구축에는 기획 단계부터 217개 소부장 기업의 수요가 반영됐다. 협력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양산 수준의 공정 환경을 제공해 신기술 검증 비용과 개발 기간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시설은 장비 유지·보수와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과 함께 협력사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R&D 도전보상제’와 ‘기술혁신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분석·측정 지원센터에서 첨단 장비를 공유하고 있다.

아울러 수출공급망 강화보증과 납품대금 지원 펀드로 협력사의 금융 부담을 낮추고 청년 채용 프로그램과 반도체 아카데미를 통해 전문인력 확보도 지원하고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국토부·서울시 5개월 만에 합의… 서울 1.6만가구 공급 길 열렸다

도심복합사업 8곳 추진에 뜻 모아
용적률 완화 범위는 추후 결정
일조권·교통 등 사업지별 검토

용적률 완화 범위를 놓고 대립해 온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5개월 만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협의를 재개해 서울 8개 사업지의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다는 데 뜻을 모았다.

다만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 확대 여부 등 구체적인 용적률은 개별 사업지의 일조권과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해 향후 통합심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실제 이번 협의 대상인 신길15구역은 기존 기준의 약 1.1배 수준인 용적률 330%를 적용한 사업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할 자치구 등은 전날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사전기획협의체를 열고 서울 시내 8개 사업지의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당초 지난 6월 개최될 예정이었던 협의체는 용적률 완화 범위를 둘러싼 양측의 이견으로 수차례 연기됐다가 약 5개월 만에 열렸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은평구 불광근린공원, 중구 약수역 인근, 성북구 장위12구역, 도봉구 수유12구역, 중랑구 상봉터미널, 영등포구 영등포역 인근·신길15구역, 강동구 고덕역 인근 등 8개 사업지, 총 1만5993가구 규모의 사업계획이 논의됐다.

그동안 국토부는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위해 법적 상한 용적률의 1.4배까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기존 1.2배 범위를 기준으로 일조권과 교통·기반시설 등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사업지별 설계안과 주변 여건을 검토해 통합심의에서 최종 용적률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전기획협의체에서 8개 사업지의 최종 용적률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급이 중요하다고 해도 주거환경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며 “사업지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일조권과 교통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용적률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조권은 사업지 내부뿐 아니라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까지 검토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 과정에서 일조 시뮬레이션과 교통 여건 등을 살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판단할 방침이다.

이번 협의 대상 가운데 신길15구역은 용적률 약 330%를 적용한 계획을 제시한 상태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용적률은 기존 기준의 약 1.1배 수준으로, 사업시행자 측이 지난해부터 마련해 온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신길15구역은 이미 지난해부터 용적률 330% 수준으로 계획을 수립해 왔다”며 “적정한 밀도와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합리적인 계획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길15구역의 용적률 330% 역시 최종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서울시는 향후 통합심의에서 일조권과 교통 등 관련 사항을 검토한 뒤 최종 용적률을 결정할 예정이다.

신길15구역은 설계가 상당 부분 마무리돼 통합심의 절차를 추진할 수 있는 상태다. 다음 달 통합심의 개최가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반면 나머지 7개 사업지는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통합심의에 상정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각 사업지가 설계안을 마련하면 서울시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용적률과 사업계획 등을 검토하게 된다.

LH도 이번 협의체에서 8개 사업지의 사업 추진에 이견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종 용적률은 향후 통합심의에서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이현진 기자 lhj@

LG 그룹 '미래사업' 중심 승부수
백승태·이상우 사장 2명 배출

계열사 2027 정기 임원인사

총 44명 임원 승진인사 단행
LG전자, 로보틱스·AIDC 사업 강화
LG화학·이노텍·엔솔 부사장 발탁


백승태 LG전자 사장


이상우 LG전자 사장

LG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2027년 정기 임원인사를 통해 경영진을 재정비하고 미래사업 중심의 조직개편에 나섰다. LG전자에서 사장 승진자 2명이 배출된 가운데 LG화학과 LG이노텍, LG에너지솔루션에서도 부사장 승진 인사가 이뤄졌다.

19일 LG에 따르면 LG전자는 사장 2명, 부사장 3명, 전무 10명, 상무 29명 등 총 44명의 임원 승진인사를 단행했다. LG화학은 14명, LG에너지솔루션은 11명, LG이노텍은 9명을 각각 승진시켰다.

LG전자에서는 백승태 HS사업본부장과 이상우 ㈜LG 경영전략부문장이 사장으로 승진했다. 백 사장은 생활가전 사업을 이끌며 로봇 액추에이터 사업화를 추진해 왔다. 이상우 사장은 LG전자 MS사업본부장 겸 디스플레이사업부장을 맡아 TV·미디어 사업을 총괄한다.

부사장 승진자는 박지환 경영관리담당, 이재현 글로벌오퍼레이션센터장, 이진효 법무그룹장 겸 준법사무국장 등 3명이다. 박 부사장은 최고재무책임자(CFO) 겸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를, 이재현 부사장은 신설 ES어플라이드사업부장을 맡는다.

LG전자는 기존 4개 사업본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냉각사업을 위한 어플라이드사업부와 전장사업의 고성능 컴퓨팅(HPC)·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 개발 조직을 신설한다. 생산기술원 산하 스마트팩토리솔루션센터는 스마트팩토리사업센터로 재편한다. 로보틱스 분야에서는 송시용 로보틱스사업센터장이 전무로 승진했다. 해외 지역대표를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변경하고 글로벌파트너십센터도 신설한다.

LG화학에서는 김무용 팜한농 대표이사와 김상민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무용 부사장은 생명과학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하며, 김상민 부사장은 석유화학사업본부장을 계속 맡는다. 심규석 전무는 첨단소재사업본부장으로 이동하고 이충훈 신임 전무가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는다. 팜한농 대표이사에는 최학용 상무가 선임됐으며, 고경덕 전자소재사업부장도 전무로 승진했다.

LG이노텍에서는 조지태 패키지솔루션사업부장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조 부사장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FC-BGA) 생산역량 확대와 수율 안정화 등 반도체 기판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이동훈 최고인사책임자(CHO)는 전무로 승진했으며, 신규 상무 7명 중 4명이 연구개발(R&D) 분야에서 발탁됐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는 조준형 정도경영담당이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김재권 최고전략책임자(CSO), 이정규 파우치·각형기술그룹장, 정원희 소형전지사업부장, 현오영 최고품질책임자(CQO) 등 4명은 전무로 승진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글로벌 수주 확대를 위한 마케팅·프로젝트관리(PM) 조직과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R&D 조직을 확대하고 북미 현지 품질 조직도 강화한다.

LG디스플레이는 기존 대형·중형·소형 3개 사업부를 중대형·소형 2개 사업부로 재편했다. 대형과 중형 사업 간 시너지를 높이고 중형 제품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LG전자에서 전입한 이정희 상무는 전무로 승진해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맡는다.

LG 주요 계열사들은 이번 인사를 통해 주력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로보틱스와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배터리, 반도체 기판 등 미래 성장사업의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삼성·SK, HBM 증산에 후공정 거점 재편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5라인 착공
SK하이닉스, 청주에 P&T7 건설
美 인디애나주에 패키징 거점 구축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고대역폭 메모리(HBM) 증산에 맞춰 후공정 생산 거점을 재편하고 있다. 차세대 제품의 제조 난도가 높아지면서 첨단 패키징 시설 투자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충남 아산 온양캠퍼스에서 차세대 HBM 첨단 패키징 시설인 5라인 착공식을 열었다. 당초 계획보다 가동 시점을 1년 이상 앞당겨 2028년 6월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온양캠퍼스에 공장 건설비 6조원과 첨단 장비 투자비 40조원 등 총 46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할 계획이다. 신규 5라인에는 3개 층에 걸쳐 약 3만 1000㎡ 규모의 클린룸이 들어선다. 증설이 완료되면 사업장 연면적은 기존 27만㎡에서 42만㎡로 확대된다.

온양캠퍼스는 지난 1991년 반도체 조립·검사 라인으로 출발한 삼성전자의 주요 후공정 거점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천안에 집중됐던 첨단 패키징 생산 기반을 온양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가 후공정 시설 확충에 나선 배경에는 HBM의 기술 고도화가 있다. HBM은 여러 장의 D램을 수직으로 쌓아 연결하는 제품으로 적층 과정의 수율과 발열 관리가 성능에 영향을 미친다. HBM4부터는 베이스다이에 첨단 로직 공정이 적용되면서 제조 복잡성도 높아졌다.

메모리 생산량뿐 아니라 패키징과 검사 공정의 처리능력도 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요소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 역량을 연계해 차세대 HBM 시장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SK하이닉스도 후공정 생산능력 확보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에 약 19조원을 투입해 첨단 패키징 공장인 P&T7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2027년 말 완공이 목표다.

P&T7은 청주 M15X에서 생산하는 HBM용 D램의 후공정을 담당할 시설이다. SK하이닉스는 전공정 생산시설과 패키징 공장을 인접 배치해 물류 효율과 생산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주를 HBM 생산부터 패키징까지 연결하는 핵심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해외 후공정 시설 투자도 병행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미국 인디애나주에 첨단 패키징 생산시설을 구축해 글로벌 AI 반도체 공급망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양사의 후공정 투자 확대는 HBM 증산과 맞물려 있다. 삼성전자는 평택 P4를 중심으로 HBM용 D램 생산능력을 늘리고 있으며 SK하이닉스도 청주 M15X의 생산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전공정 생산능력 확충과 함께 패키징·검사 시설에 대한 투자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HBM 중심의 생산체계 재편은 범용 메모리 후공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자체 패키징 설비와 인력이 고부가 HBM에 집중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의 외부 위탁 필요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IBK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삼성전자의 천안·온양 후공정 재편과 메모리 생산량 증가가 범용 메모리 외주화를 촉진할 것으로 분석했다. SK하이닉스 역시 외부 전문기업과 장기 후공정 위탁 계약을 맺는 등 자체 생산시설과 외부 생산역량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HBM은 전공정에서 생산량을 늘리더라도 패키징과 검사 공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신규 시설의 가동 시점과 초기 수율 확보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삼성전자, '소캠2'로 에이전틱 AI 공략

탈착식 모듈 구조로 교체·확장 용이
기존 제품 대비 에너지 효율 70%↑



삼성전자 LPDDR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소캠(SOCAMM)2'. /삼성전자

인공지능(AI)이 스스로 판단하고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틱 AI로 진화하면서 서버 메모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저전력 D램(LPDDR) 기반 서버용 메모리 모듈 'SOCAMM2(소캠2)'를 앞세워 변화하는 AI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고 있다.

19일 삼성전자 반도체 테크블로그에 따르면 에이전틱 AI 확산으로 서버 메모리의 용량과 대역폭뿐 아니라 전력 및 공간 효율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에이전틱 AI는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기존 생성형 AI와 달리 목표 달성을 위해 여러 작업을 연속적으로 수행하는 기술이다. 추론과 행동, 결과 관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AI 모델 호출이 늘어나고 처리해야 할 데이터도 증가한다.

특히 여러 AI 에이전트가 역할을 나눠 협업하는 환경에서는 이전 작업 결과와 대화 맥락 등을 저장하고 공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기존 연산 결과를 재활용하는 핵심값 캐시(KV캐시)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메모리 용량과 데이터 처리 속도의 중요성도 커진다.

삼성전자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할 솔루션으로 SOCAMM2를 제시했다. SOCAMM2는 모바일 기기에 주로 사용되던 LPDDR의 저전력·고대역폭 특성에 탈착 가능한 모듈형 구조를 결합한 서버용 메모리다.

기존 LPDDR은 메인보드에 직접 납땜하는 방식으로 장착돼 서버 구축 이후 메모리를 교체하거나 용량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반면 SOCAMM2는 메인보드 교체 없이 모듈을 교체하거나 업그레이드할 수 있어 AI 작업에 따라 메모리 구성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

공간 활용도와 냉각 효율을 고려한 설계도 특징이다. 수평형 구조를 적용해 서버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냉각장치 배치와 공기 흐름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에도 유리하다.

삼성전자의 LPDDR5X 기반 SOCAMM2는 최대 153.6GB/s의 대역폭을 지원한다. 기존 DDR5 RDIMM 대비 약 2.6배 수준이며 에너지 효율도 70%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제품은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아 'CES 2027 혁신상'을 수상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미국 새너제이에서 열린 엔비디아 'GTC 2026'에서 베라 루빈 플랫폼용 메모리 솔루션을 공개했다. 당시 베라 중앙처리장치(CPU)용 SOCAMM2의 품질 검증을 완료하고 업계 최초로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향후 LPDDR6 기반 SOCAMM2로 기술을 발전시켜 대역폭과 용량, 전력 효율을 추가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는 테크블로그에서 "에이전틱 AI를 위한 시스템 메모리는 용량과 대역폭, 전력 효율, 공간 효율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SOCAMM2는 LPDDR의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모듈형 설계를 통해 다양한 AI 작업에 적합한 메모리 구성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차현정 기자

포스코인터, 美 LNG 도입·셰일가스 인수

이달 美 LNG 7만3000t 도입
광양 저장기지 확충, 가스전 증산

포스코인터내셔널이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장기계약 물량 도입과 셰일가스 자산 인수를 추진하며 에너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의 약 60%를 차지한 에너지 부문에서 조달·거래와 가스 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소재·식량 부문에서도 생산·가공 기반을 확충하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이달 미국산 LNG 약 7만3000t을 광양 LNG터미널에 도입할 예정이다. 2022년 미국 셰니에르에너지와 체결한 연간 40만t 규모의 20년 장기계약에 따른 첫 물량으로, 지난달 전용선 'HL FORTUNA'호에 선적됐다.

회사는 내년부터 미국산 LNG를 유럽에 판매하고 국내 필요 물량은 아시아에서 별도로 조달하는 방안도 협의 중이다. 장기계약 물량을 활용해 지역별 거래 기회를 확대하려는 구상이다.

에너지 부문은 회사 실적의 핵심 축이다. 지난 3분기 연결 영업이익 4007억원 중 2391억원(59.7%)을 차지했다. 호주 세넥스 영업이익은 5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4% 증가했고, 발전사업(852억원)과 미얀마 가스전(980억원)도 각각 21.9%, 8.9% 늘었다.

국내 LNG 저장·처리 기반도 확대됐다. 지난 10일 전남 광양 제2LNG터미널 준공으로 총 저장능력이 93만kl에서 133만kl로 늘었다. 광양 터미널은 외부 고객사의 LNG를 하역·저장·기화해 공급하고 이용료를 받는 동시에 자체 발전용 수요에도 대응한다.

해외에서는 가스 생산자산 확보에 나선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확인실사를 마친 미국 셰일가스 상류 자산의 인수대금을 이달 말 확정하고 거래를 종결할 계획이다. 인수 후 연간 약 50개의 생산정을 시추해 생산량을 늘리고, 2040년까지 연평균 약 1000억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한다는 목표다.

기존 해외 가스전도 증산을 추진 중이다. 하루 평균 약 5억 입방피트의 가스를 미얀마와 중국에 공급하는 미얀마 가스전은 2027년 추가 생산을 목표로 4단계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내년 약 2조원 규모의 투자를 검토 중이며 상각전영업이익(EBITDA) 이내에서 절반 가량을 에너지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금융을 편리하게
미래를 풍요롭게

바다의 새로운 가능성을 BNK에 담았습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 시작된 꿈이 더 넓은 바다로 이어지도록
BNK금융그룹이 해양수도권의 두근두근한 미래와 함께합니다

2026년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및 선박·해양인프라 금융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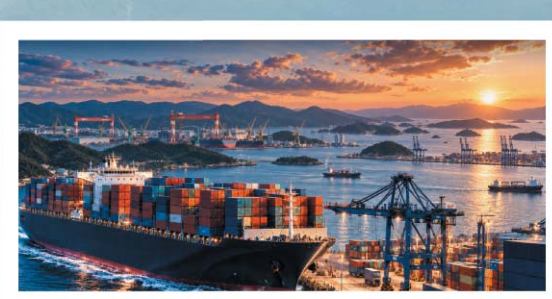




부산 국제 해양비즈니스 중심지 **해양금융추진단 신설 · 특화센터 운영**



울산 친환경 에너지 허브 · **에너지산업 금융지원 확대**



경남 글로벌 공급망 핵심거점 **해양 · 물류 등 지역 특화산업 금융 확대**

본 광고는 생성형 AI로 제작되었습니다

BNK 부산은행 BNK 경남은행 BNK 캐 피 탈 BNK 투자증권 BNK 저축은행
BNK 자산운용 BNK 벤처투자 BNK 신용정보 BNK 시 스 템 BNK 썸농구단

세상을 가슴 뛰게 하는 금융 BNK 금융그룹

한중 관계 복원에 FTA 협상 타결… 李 대통령 '외교 성과'

일본 총리-중국 국가주석과 회담
中과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타결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0분 간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중국 선전 선전국제교류센터(ICSZ)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세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선전에서 개최된 제33차 에이펙(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정상회담을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짧게 환담을 나눈 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도 회동하는 등 미·중·러 정삼회담을 앞두고 숨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17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 18~19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해 회의 일정을 진행하며 사이사이 주요국 정상과 정상회담을 소화하는 등 외교전을 펼쳤다.

이 대통령은 16~17일 이틀에 걸쳐 한-아세안 정상회의, 한-메콩 정상회의,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필리핀, 태국과 양자 정상회담을 가졌다.

특히 17일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한일 관계 흐름을 조성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어질 한일 간 셔틀외교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려왔던 협력의 축적과 선순환을 통해 한층 더 발전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갈 전기로 삼고자 한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이러한 한일관계 발전 방향에 대한 양국 정상 간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8일엔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선전으로 이동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중국 화남지역 한국인 오찬간담회, 에이펙 CEO 서밋 연설에 이어 시진핑 주석 주최 환영 만찬에 참석했다. 19일엔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해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란 비전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에이펙 구성원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 대해 청와대는 ▲한중관계 전면 복원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 더 성숙한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 ▲인적 교류 확대와 양국민 우호 정서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 등의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의 직접적인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우리의 사활적 이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반도 평화공존 실현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고, 시 주석은 남북관계 개선 및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고 중국 측도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2015년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서 서비스와 투자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중간에 4년 넘게 협상이 중단되는 등 우여곡절을 거쳐 8년8개월만에 실질적으로 타결됐다.

이번 협상을 통해 양국은 콘텐츠, 관광, 법률 등 다양한 서비스 분야에서 상호 시장 진출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하고 상대국 기업의 제3국 기업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하는 '최혜국 대우' 의무를 도입하고, 투자 보호와 규제 투명성 강화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선 한류를 제한하는 소위 '한한령'이 전면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 영업에 도움이 되고 중국 관광객의 소비 증대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한령은 중국의 어떤 공식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며 "여기에 대해 사실 콘텐츠 부문에선 우리가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는 것을 이번에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한령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진전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을 마친 후 푸틴 대통령과 약 10분 간 회동했다. 이 대통령 취임 후 푸틴 대통령과의 공식 회동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번 회동에서 "한러 관계가 여러 여건 상 쉽지 않지만, 그렇더라도 문제가 없는 영역에서 협력 여지를 찾아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자는데 대체적인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며 "한반도 정세 악화를 방지하고 긴장 완화를 할 필요가 있다는데도 의견의 일치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에이펙 정상회의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고위 관계자는 두 정상이 다음달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관련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정쟁에 발목… 반도체법 등 민생법안 '표류'

민주유공자법 놓고 국힘 필리버스터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 34건에 달해


1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지연 전략을 펼쳤다. 여야가 연일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도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려고 하기보다, 정쟁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눈살이 찌푸려 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개별법으로 예우를 하는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처럼 유신반대투쟁, 6월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가족에게도 의료지원 등의 예우를 갖추는 근거를 만드는 법이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때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 수순을 밟았고, 범여권이 과반 의석 이상을 확보한 22대 국회, 이재명 정부에서 재추진됐다.

민주유공자법 개정안을 심사한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유공자로 인정할 대상과 기준이 지나치게 불명확하다"며 "현행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인정된 민주화 사건에는 수 많은 경찰들이 희생된 동의대 사건, 남민전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다. 희생된 경찰공무원분들과 그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사람들을 어떻게 동등하게 예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대학입학전형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 법이 통과된다면, 민주유공자 본인과 자녀들이 대입 특별 전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대입 관련 특혜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천준호 민주당 운영수석부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민주화운동으로 장애를 얻은 유공자에게 국가가 의료 지원하는 것이 문제인가. 목숨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낸 숭고한 희생을 예우하는 것이 문제인가. 국민의힘이 남발하는 필리버스터 역시 민주화의 결실"이라며 "이러한 법안에 필리버스터 제도를 악용하는 스스로가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반문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해 계류돼 있는 법안은 총 34건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여야 합의를 거친 안이다.

여야가 쟁점 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계류 법안은 쌓이고 있다. 정기국회 막판 법안 심사를 거치며 계류 법안은 늘어날 예정이다. 여야 정책위원회가 공통 발의 법안을 신속처리하겠다며 민생정책 연석회의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쟁점 법안 탓에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에는 중요 법안도 눈에 띈다.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반도체 특구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김태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도 본회의 문턱 앞에 와 있다.

/박태홍 기자

대법원, 한덕수 혐의 일부 무죄… 파기환송

민주당 비상 의총·혁신당 촛불집회

대법원이 19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판단했지만,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할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하려면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적어도 그 결과를 용인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은 한 전 총리가 계엄 계획을 선포 당일 밤에 알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이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듣게 해 계엄 선포를 재고하도록 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수의견은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들로부터 계엄 관련 문건에 서명받으려 한 행위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단전·단수 조치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허위공문서 작성과 위증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도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국무회의 심의 관여 부분과 나머지 혐의의 죄수 관계를 고려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가 확정됐다.

이에 여권은 대법원판결 이후 비상 의원총회와 촛불집회 등을 예고하며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비상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공지했다. 조국 혁신당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국회 본청 앞 계단으로 이동해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박경수 기자 gws0325@

민주당 정보통신특위 출범… AI 안전 논의

김민석 "AI 악용 방지, 정책의 책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에서 "이미 AI(인공지능)가 우리 삶에 들어온 현실이 되어 버렸는데, 그런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는 것이 또 정치와 정책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발대식 및 1차 회의 인사말에서 "AI가 주는 편의뿐만 아니라 AI가 만들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주 현실적으로 발견하게 되고, 그러한 일상이 그야말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정보통신특별위원회는 디지털안전법을 통한 플랫폼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든가, AI를 활용한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정책화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마침 오늘 첫 회의도, AI 해킹, 개인정보 유출 대응 현황 점검, 그리고 AI글라스(안경),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한 부정행위 기술 현황 점검 등 아주 시의성 있게 해주시는 것으로 들었다"며 "오늘 첫 회의를 시작으로 우리가 디지털 강국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당의 가장 선도적인 기관으로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모두를 위한 하나의 금융이 내일을 위한 행복의 기회로

누구나 더 밝은 내일을 그려가도록 하나금융그룹이 포용금융으로 힘을 더합니다



하나금융그룹은 누구나 필요한 금융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금융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모두의 금융권리를 넓혀갑니다

- 청년 및 소상공인의 금융지원
- 채무자보호 및 범죄예방
- 지속가능한 포용금융 내재화

✦ 해당 제작물은 생성형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비대면 확산’ 은행 ATM 급감소 고령층 등 금융 접근성 멀어진다

4대 은행, 1년9개월간 1200대 없애
작년 869대 이어 올해 399대 추가
3분기 영업점도 총 37곳 줄어들어

4대 시중은행이 영업점을 축소하는 가운데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자동화기기도 빠르게 줄고 있다. 최근 1년9개월 사이 사라진 자동화기기만 1200대를 넘어섰다. 비대면 금융거래 확산과 운영비 부담이 맞물린 결과지만, 디지털 금융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지방 주민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3분기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이 운영하는 자동화기기는 총 1만6634대로 집계됐다. ATM과 현금자동지급기(CD), 공과금 수납기 등을 합산한 수치다.

2024년 말 1만7902대였던 자동화기기는 지난해 869대 감소한 데 이어 올해 들어 9월까지 399대가 추가로 줄었다. 1년9개월 만에 총 1268대(7.1%)가 사라진 셈이다.

은행별로 신한은행의 자동화기기는 2024년 말 4991대에서 올해 9월 말 4414대로 577대(11.6%) 줄었다. 같은 기간 우리은행은 4222대에서 3808대로 414대(9.8%) 감소했다.

KB국민은행은 5169대에서 4915대로 254대(4.9%) 줄었고, 하나은행은 3520대에서 3497대로 23대(0.7%) 줄었다. 은행별로 감소 규모에는 차이가 있지만 4대 은행 모두 자동화기기 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화기기뿐 아니라 대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점도 축소되고 있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4대 은행의 영업점은 지점과 출장소를 합쳐 2665곳으로, 6월 말보다 37곳 감소했다. 3분기 중 감소한 영업점은 모두 우리은행 소속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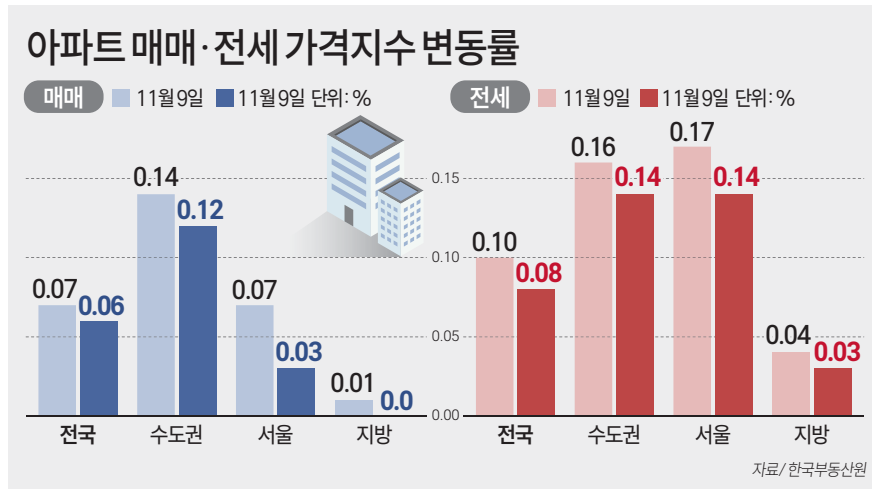
은행권의 점포와 자동화기기 축소는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금융거래가 확산한 영향이 크다. 현금 사용이 줄고 모바일을 통한 계좌이체와 금융서비스 이용이 보편화하면서 오프라인 금융시설을 유지할 유인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현금 수송과 보안 관리, 기기 유지보수 등에 드는 비용도 은행들의 자동화기기 축소를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문제는 영업점과 자동화기기가 동시에 줄어들 경우 금융 취약계층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디지털 금융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이나 금융시설이 부족한 지방에서는 현금 인출과 공과금 납부 등 기본적인 금융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하고 현금 사용 비중이 줄어들면서 ATM 이용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현금 호송과 보안, 기기 유지보수 등 물리적 부담도 커져 은행권의 ATM 기기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서울 집값 93주 연속 ⬆… 상승폭은 둔화

부동산원, 아파트 매매 주간 0.03% ⬆
강남·용산·동작 등 7개구 하락 전환

서울 아파트값이 93주 연속 올랐다. 다만 상승폭은 전주의 절반 이하로 줄었으며, 강남3구를 포함한 7개 구는 내렸다.

한국부동산원이 19일 발표한 11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6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3% 올랐다.

서울 상승률은 10월 둘째 주 0.16%에서 0.13%, 0.09%, 0.07%, 0.07%로 낮아져 왔고, 이번 주 0.03%까지 떨어졌다. 올해 누적 상승률은 8.91%다.

부동산원은 “일부 지역과 구축 단지에서 매매가격을 낮춘 계약이 체결되는 가운데 정주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와 역세권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가 올랐다”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하락한 자치구는 송파·서초·강남·성동·용산·동작·강동 등 7곳이다. 낙폭이 가장 큰 곳은 송파구로 0.42% 내렸다. 서초구와 강남구는 각각 0.26%, 0.25% 하락했다. 강남구(-2.57%)와 서초구(-0.80%)는 올해 누적으로도 마이너스다.

성동구(-0.04%)와 강동구(-0.01%)는 2주 연속 내렸고, 용산구(-0.02%)와 동작구(-0.01%)는 이번주 하락세로 돌아섰다.

반면 외곽 지역은 오름세를 이어갔다. 성북구(0.34%)는 돈암·정릉동 대단지, 중랑구(0.32%)는 신내·면목동, 금천구(0.29%)는 시흥·독산동, 도봉구(0.24%)는 쌍문·창동 역세권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도는 0.21%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폭을 유지했다. 남부 지역이 강세를 이끌었다. 특히 수원 권선구가 0.62% 올라 전주(0.26%)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안양 동안구(0.61%)와 용인 기흥구(0.55%)도 강세를 나타냈다.

수도권 전체로는 아파트값이 0.12% 올랐다. 지방은 보합(0.00%)이었고, 전국은 0.06% 상승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스포츠 경기 무료관람 등 수험생 혜택 ‘풍성’

카드·캐피탈사 수능시즌 이벤트
KB국민, 50만원 이용고객 페이백
신한·비씨, 수능 응원 댓글 이벤트
우리, 프로배구단 무료관람 실시

국내 주요 카드·캐피탈사들이 수능 시즌을 맞아 수험생 응원에 나섰다. 경품 증정, 스포츠 경기 무료 관람까지 다양한 혜택을 선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이달 30일까지 KB국민 개인 신용·체크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수능 응원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기간 개인 신용·체크카드로 50만원 이상 이용한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경품을 제공한다. 경품은 KB Pay(페이) 머니 100만원(1명), 신세계 상품권 10만원(10명), 배달의민족 상품권 3만원(110명) 등이다.

특히, 이달 22일까지 외식업종·백화점·대형마트·편의점에서 1건 이상 결제하면 추첨 기회가 1회 추가된다. 23~30일에는 건당 30만원 이상 결제한 내역이 1건 이상이면 추첨 기회 3회가 주어진다.

신한카드와 비씨카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수능 응원 댓글 이벤트를 진행한다.

신한카드는 이달 24일까지 신한카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고, 수험생 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 중 일부를 선정해 모찌 찹쌀떡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이달 30일이다.

비씨카드는 비씨카드 공식 인스타그램에 수능 합격·응원 댓글을 남기는 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BBQ 황금올리브치킨·콜라(5명), 메가 MGC커피 아이스아메리카노(10명)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우리카드는 이달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우리카드 우리 원(WON) 프로배구단 홈경기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벤트 대상 경기는 이달 22일, 26일, 내달 5일, 23일, 31일 등 총 5경기다.

수험생 본인에 한해 2층 일반석의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현장 매표소에서 수험생과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티켓 매진 시에는 혜택 적용이 불가하다.

현대캐피탈도 배구단 홈경기 무료 관람 이벤트를 실시한다. 수험생 본인에 한해 유관순체육관 내 점프업석·A석·B석 무료 관람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무료 관람 이벤트는 이달 20일과 내달 2일, 6일, 15일, 19일에 열리는 경기를 대상으로 한다.

현대카드는 문화생활 혜택을 지원한다. 올해 수능을 치른 수험생은 내달 31일까지 ‘현대카드 컬처프로젝트 31 : 웨인 티보 전’ 티켓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혜택은 동반 1인까지 적용 가능하다.

한편 카드업계의 수능 이벤트는 캐시백 등 금전적 혜택에서 스포츠 경기 무료 관람, 전시 관람료 할인 등 문화·여가 혜택 중심으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방어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축소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청구전산화 요양기관 연계 현황〉 (2026.11.18 기준, 개)

구분	병원·보건소(1단계)		의원·약국(2단계)		합계	
전체	7,810	(100%)	97,833	(100%)	105,643	(100%)
연계 예상*	5,095	(65.2%)	96,685	(98.8%)	101,780	(96.3%)
연계 완료**	5,017	64.2%	52,241	(53.4%)	57,258	(54.2%)

*연계 예상 : 실손24 참여에 동의하거나(1단계) 실손24 참여 EMR을 이용하는 요양기관(2단계)
**연계 완료 : 실손24 연계가 완료되어 청구전산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요양기관

금융위, “놓친 실손보험금 1조 찾아가세요”

‘실손24’ 미청구 보험금 찾기 추가
의료기관 연계 내년 1분기 서비스

최근 3년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의료보험금이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소비자가 놓친 보험금을 간편하게 확인하고 청구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부터 ‘미청구 보험금 찾기’ 서비스를 도입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부위원장 주재로 실손보험 점검회의를 열고 미청구 실손보험금 찾기 서비스 도입 방안과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추진 현황, 계약전환 할인 및 선택형 할인특약 제도 시행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4~2026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은 실손보험금은 최대 1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이나 약국을 다시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미청구 원인으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서비스인 ‘실손24’에 미청구 보험금 찾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실손24 앱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조회에 동의하면 카드 결제 정보와 보험금 청구 이력을 결합해 최근 3년간 방문한 병·의원 가운데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곳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보험개발원과 보험사, 신용정보원,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 관계기관과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실손24를 통한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연계도 확대한다.

지난 18일 기준 실손24에 연계된 요양기관은 총 5만7258곳으로 전체 대상 기관의 54.2%다. 병원과 보건소 등 1단계 대상 기관의 연계율은 64.2%, 의원과 약국 등 2단계 대상 기관은 53.4%로 집계됐다.

실손24 가입자는 약 596만명이며 누적 청구건수는 1955만건에 달한다.

신진창 금융위 부위원장은 “받을 보험금은 손쉽게, 빠짐없이 받고 보험료는 각자의 의료 이용에 맞도록 해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편의성과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3분기 순대외금융자산 역대 최대 폭 증가

한은, 3448억弗로 2807억弗 증가

올해 3분기 우리나라 순대외금융자산이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거주자의 해외투자가 늘어난 데다 국내 주가 하락으로 외국인 보유주식의 평가액이 줄면서 대외금융부채가 감소한 영향이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3분기 국제투자대조표(잠정)’에 따르면 9월 말 순대외금융자산은 3448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2807억달러 증가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우리나라 거주자의 대외금융자산에서 비거주자의 국내투자 잔액인 대외금융부채를 뺀 금액이다.

대외금융자산은 3조2221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1379억달러 늘었다. 반면 대외금융부채는 2조8774억달러로 1429억달러 감소했다. 자산 증가와 부채 감소가 맞물리면서 순대외금융자산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

대외금융부채 감소는 국내 증시 하락에 따른 평가액 축소의 영향이 컸다. 3분기 코스피가 19.3%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국내 지분증권 투자 잔액은 1888억달러 줄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 잔액은 전체적으로 1643억달러 감소했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규모는 2분기 639억달러에서 3분기 82억달러로 축소됐다. 지분증권 잔액 감소분 가운데 가격·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에 따른 감소가 1805억달러를 차지했다. 전체 순대외금융자산 증가분을 요인별로 보면 매매·대출 등 거래 요인이 1377억달러, 가격·환율 변동 등 비거래 요인이 1430억달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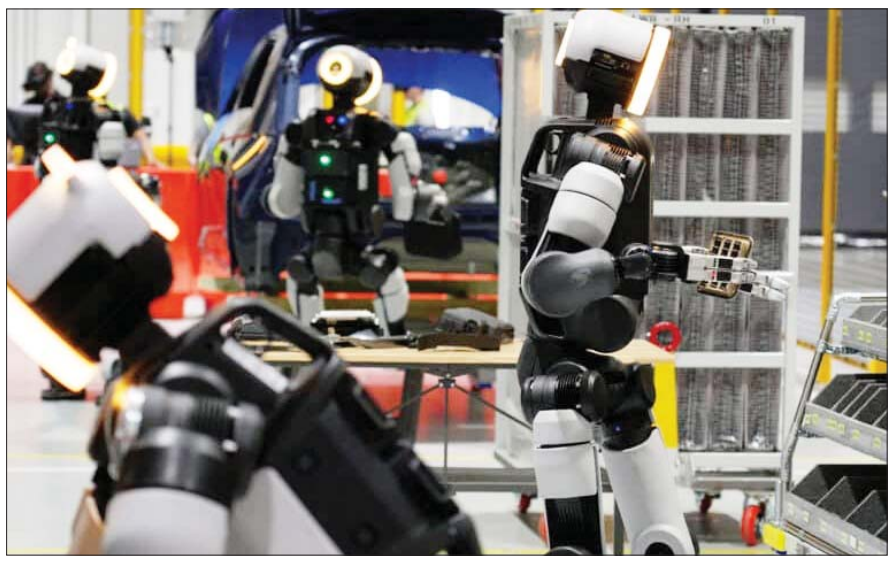
거주자의 해외 증권투자 잔액은 1조4209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401억달러 증가했다. 해외 주식 순매수 규모가 210억달러에서 324억달러로 확대됐고, 해외 채권 투자는 30억달러 순매도에서 144억달러 순매수로 전환했다.

/김주형 기자 gh471@

美 생산 확대에 인건비 부담… GM·현대차, 로봇 자동화 속도

GM, 2028년까지 자동화 20% 확대
현대차, 美 공장에 휴머노이드 투입

부품운반·조립공정 자동화 추진
인건비 절감·생산성 향상 기대
초기 투자·설비 전환 비용 부담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 내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에서 자동차 제조 작업을 학습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보스턴다이나믹스

제너럴모터스(GM)와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생산 확대에 맞춰 로봇 자동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GM은 부품 운반용 로봇을 늘리고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의 생산공정 투입을 추진한다. 높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초기 투자비와 설비 전환 비용을 고려한 경제성 확보가 과제로 꼽힌다.

19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로이터는 지난 17일 GM이 2028년까지 북미 공장의 로봇·자동화 활용을 20%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GM은 인디애나주 코코모 공장에서 로봇을 자체 개발·조립하며 공장 내 부품 운반용 자율이동로봇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자동화 확대는 부품 공급망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GM은 신규 계약에 입찰하는 협력사에 자동화 계획을 요구하고 평가 결과를 계약 결정에 반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경에는 미국 제조비용 상승이 있다. GM은 2023년 전미자동차노조(UAW)와의 임금협약 당시 차량 한 대당 인건비가 약 575달러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로이터는 인건비와 미국으로 생산을 옮기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자동화 확대 요인으로 짚었다.

현지 생산시설 투자도 이어지고 있다. GM은 지난해 미시간·캔자스·테네시주 3개 공장에 약 40억달러를 투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현대차그룹도 2025~2028년 자동차·철강·로봇 등 미국 사업에 총 260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생산 확대와 함께 현지 비용을 관리하는 일이 중요해진 셈이다.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공정 적용을 준비하고 있다. 2028년부터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보스턴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를 투입한다.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분류·배치하는 서열 작업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부품 조립으로 범위를 넓힌다. 기아도 2029년 하반기 조지아 공장에 아틀라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조지아의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RMAC)는 이를 위한 학습·검증 거점이다. 실제 제조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작업을 훈련하고 확보한 데이터를 로봇 성능 개선에 활용한다. GM이 부품 운반 자동화를 확대하는 가운데 현대차그룹은 휴머노이드가 맡을 수 있는 작업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

다만 로봇 도입이 곧바로 원가 절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장비 구매비 외에 센서 설치와 작업장 변경,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UAW가 GM의 자동화 계획을 일자리 축소 수단이라고 비판하는 등 고용 문제도 변수다.

이호근 대덕대 자동차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인건비가 워낙 비싸 현지화로 관세를 피하더라도 과도한 인건비가 늘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그런 부분을 로봇으로 자동화하려는 수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이상적인 케이스로 계산했을 때가 2년 정도"라면서도 "로봇을 적용하기 위해 곳곳에 센서를 붙이거나 통로나 작업장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는 사람과의 협업이 중요한 만큼 이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투자 대비 수익성이 나오기까지 빨라도 3년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이승혁 기자

sh95@metroseoul.co.kr

BMW·벤츠·제네시스, 프리미엄 SUV 3파전

BMW X5, 주행성능 강화
벤츠 GLE, 디지털 사양 확대
GV80, 연비·가격 경쟁력 확보

BMW와 메르세데스-벤츠가 신형 X5와 GLE를 앞세워 하이브리드를 추가한 제네시스 GV80과 국내 프리미엄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 시장에서 경쟁한다. 독일 두 브랜드는 주행성능과 디지털 사양을 강화했고 제네시스는 연료 효율과 가격을 앞세워 수요 확보에 나섰다.

18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BMW코리아는 지난 16일 5세대 완전변경 모델 '더 뉴 BMW X5'의 사전예약을 시작했다. 같은 날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도 GLE 부분변경 모델을 출시했다. 제네시스는 지난달 6일 브랜드 첫 하이브리드 모델인 GV80 하이브리드를 선보였다.

세 모델은 고급 SUV 고객을 겨냥하지만 상품 구성에는 차이가 있다. X5는 가솔린과 디젤을 유지하면서 디자인과 주행 기술을 바꿨다. GLE는 디지털 편의사양을 강화했고 GV80은 하이브리드를 더해 동력계 선택지를 넓혔다.

구매 가격에서는 차이가 뚜렷하다. 신형 X5는 1억2000만~1억3500만원, GLE는 1억3670만원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7680만원부터 시작한다. 다만 기본 사양과 선택 품목에 따라 실제 구매 가격은 달라진다.

주행성능과 승차감을 높이는 방식도 다르다. X5는 가솔린 '40 xDrive'와 디젤 '40d xDrive' 등 2개 동력계, 총 6개 트림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예약을 받는다. 에어 서스펜션과 뒷바퀴 조향 기능을 기본 탑재해 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을 개선했다.

GLE는 직렬 6기통 가솔린 엔진과 9단 자동변속기를 조합했다. 에어 서스펜션과 가변 댐핑 시스템으로 노면과 주행 상황에 대응한다. 부드러운 동력 전달과 차체 움직임 제어를 통해 승차감을 높였다는 게 벤츠 측 설명이다.

GV80 하이브리드는 후륜구동 기반 2.5ℓ 터보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탑재했다. 시스템 합산 최고출력은 352마력으로 기존 2.5 터보보다 약 16% 높다. 복합연비는 19인치 휠을 장착한 2륜구동 5인승 기준 12㎞/ℓ로 기존 가솔린 모델 대비 29% 개선됐다.

실내에서는 X5와 GLE의 디지털 기술 경쟁이 두드러진다. X5는 파노라믹 iDrive를 적용하고 트림에 따라 동승자용 화면도 제공한다. 외관에는 차세대 디자인 방향인 '노이어 클라쎄'를 반영했다.

GLE는 차량 운영체제 'MB.OS' 기반의 4세대 MBUX 인포테인먼트를 탑재했다. 12.3인치 디스플레이 3개를 하나의 유리 패널로 통합한 'MBUX 슈퍼스크린'으로 운전자와 동승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도 지원한다.

기존 판매에서는 X5와 GLE가 근소한 차이로 경쟁하고 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올해 1~10월 X5의 국내 신규 등록은 5544대로 GLE·GLE 쿠페 합산 5339대를 205대 앞섰다.

GV80은 하이브리드가 출시 첫 달부터 가솔린 판매를 웃돌았다. 지난달 959대가 판매돼 전체 GV80 판매량 1814대의 52.9%를 차지했다. 새 동력계가 초기 수요를 확보한 셈이다. /이승혁 기자 sh95@

김준석 "하나의 목표로 역량 결집"

〈대한전선 사장〉

임직원과 '얼라인먼트 데이' 개최
전기화 흐름 속 성장 기회 강조



김준석 대한전선 대표이사 사장이 임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대한전선

"목표는 하나로 갖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은 치열해야 한다."

김준석 대한전선 사장은 18~19일 서울 서초동 본사와 충남 당진케이블공장에서 열린 임직원 소통 행사 '얼라인먼트 데이(Alignment Day)'에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서로의 역량을 연결할 때 대한전선의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전기화라는 거대한 산업 변화가 대한전선에 기회가 되고 있다며 이를 성장으로 연결하려면 조직 전체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성장에 따른 결실은 임직원에게 돌려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기업의 성과가 임직원의 보람과 자부심으로 이어지고 임직원의 성장과 몰입이 다시 회사의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며 "묵묵히 맡은 역할을 다하는 직원이 빛나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취임한 김 사장은 중장기 비전과 경영 철학을 임직원에게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듣기 위해 '얼라인먼트 데이'를 마련했다. 행사명에는 경영진과 임직원이 회사의 비전과 목표를 함께 이해하고 각자의 역할을 한 방향으로 맞춘다는 의미가 담겼다. 해외 사업장과 시공 현장 임직원도 온라인 생중계로 참여했다.

현장에서는 먼저 수주와 실적, 재무·투자 현황 등 경영 현황이 공유됐다. /원관희 기자

LIG D&A, 입찰 제한 피했지만 수주 불안

법원, 방사청 제재 집행정지 인용
1.9조 규모 유도탄 사업 협상 지속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당장의 입찰 제한을 피했지만 주요 사업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이어지고 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발주·생산계획도 영향을 받는 만큼 해외 고객의 신뢰까지 고려한 경영진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의 24개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당장의 신규 수주 차질을 피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7일 LIG D&A가 방사청 처분에 불복해 낸 신청을 인용했다. 처분 집행은 취소소송의 1심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이에 따라 12월 계약을 목표로 추진 중인 KF-21 탑재용 장거리 공대공유도탄 체계개발사업의 후속 협상과 계약 절차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LIG D&A는 지난달 체계완성품과 탐색기 등 5개 세부과제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후속 양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 규모는 약 1조 9000억원이다.

다만 제재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하면 판결 선고 후 30일이 지난 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효력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

국내 매출 비중이 약 75%에 달해 입찰 제한이 시행될 경우 신규 수주와 연계된 부품·장비 발주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협력업체로서도 향후 발주 규모와 시점을 가늠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소송 결과는 중장기 생산·투자계획의 변수로 남는다.

해외에서는 수주 경쟁 과정에서 기업 신뢰도가 공격받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이 조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업체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내 방산업체들이 하나의 무기체계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파장을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관희 기자 wkh@

KAI, 미래 항공우주 기술 경쟁력 강화

한국기계연구원과 연구개발 협력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한국기계연구원과 손잡고 스텔스 성능 고도화와 인공지능(AI) 기반 항공기 제조기술 개발에 나선다.

KAI는 한국기계연구원과 항공우주 첨단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KAI의 항공우주 체계개발 역량과 한국기계연구원의 원천기술 및 연구 인프라를 연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연구성과의 산업적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저피탐 표면 기술과 지능형 금속 적층 등 미래 항공우주 분야 공동연구를 추진하고, 항공기 개발·생산 현장에 적용할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협력 분야는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 공동연구과제 발굴 및 국책사업 공동 대응, 시험·평가 인프라 활용, 첨단소재·제조 및 AI 기반 기술 고도화 등이다.

특히 한국기계연구원의 신뢰성 검증 및 시험·평가 인프라를 활용해 항공기 성능과 품질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KAI는 기술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기계연구원은 연구성과의 산업 현장 적용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 체결 후 열린 기술교류회에서는 항공·방산 부품 신뢰성 평가, 스텔스용 투명 메타 디스플레이, AI 기반 금속 적층 공정기술, 항공기 복사에너지 능동제어 기술 등 4개 분야의 기술 발표가 진행됐다. /유혜온 기자 dhaledhale@

"中企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업종·기업 협력 확대되길"

중기중앙회 '2026 백두포럼'

日 도쿄서 열려… 中企인 40명 참여
글로벌화, 해외진출 경험 등 공유
협동조합 공동 해외진출 성과 소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앞줄 왼쪽 8번째)이 '2026 백두포럼'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 업종별 대표들이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백두포럼'을 통해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 등을 추가로 모색했다. 올해 17회째인 백두포럼은 내년부터 (가칭) 'KBIZ 글로벌포럼'으로 새롭게 탈바꿈한다.

중기중앙회는 19일 일본 힐튼 도쿄 오다이바 호텔에서 중소기업인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 백두포럼'을 개최했다.

'백두포럼'은 2010년 당시 중기중앙회 회장단과 학계 관계자 등이 백두산을 오르며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 포럼을 만들자고 뜻을 같이하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후 중국, 베트남, 두바이, 일본 등을 거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는 글로벌 포럼으로 발전해 왔다. 백두포럼은 지난해에도 일본 도쿄에서 열린 바 있다.

올해 포럼은 중소기업 글로벌화 전략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업종별 협동조합·중소기업이 직접 해외진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했다. 백두포럼의 지난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도 논의했다.

발제에서 중기중앙회 김희중 경제정책본부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의 다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품목·시장별 특성에 맞는 해외진출 전략을 제시하는 한편,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동진출과 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개선 등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오랜 기간 해외시장을 개척해 온 수출선도기업부터 최근 해외진출에 나선 기업, 협동조합 등이 참여해 다양한 글로벌화 경험과 성과를 공유했다.

수출선도기업의 글로벌화 성공사례로 최우각 대성하이텍 대표는 일본 공작기계 기업 노무라VTC를 인수해 핵심 기술력을 확보하고, 일본의 연구개발과 한국의 제조 역량을 결합해 수출국을 7개국에서 25개국으로 확대한 경험을 소개했다. 한영돈 한울생약 회장은 기술개발과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미국 코스트코에 진출해 지난해 800억원의 수출실적을 달성한 경험을 공유했다.

최근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기업으로는 김석원 맑은물에 대표가 일본에서 도입한 낫토 제조기술을 접목해 단백질 에너지바를 개발하고, 이를 일본 돈키호테에 수출한 사례를 소개했다.

김석원 대표는 "글로벌화는 양방향이다. 배울 것은 들여오고 팔 것은 내보내는 것, 둘 다 글로벌화"라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해외진출 성과도 이어졌다. 김신길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필리핀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지난해 마르코스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농기계 전용공단 착공식을 개최하고, 국내 농기계 중소기업의 공동진출을 추진 중인 사례를 소개했다. 정규봉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수출컨소시엄을 활용해 조합원사의 중국시장 진출을 지원해 온 성과를 공유했다.

한일 단체간 기술 교류·협력 사례도 있었다. 김동우 한국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일본 전국PCa창조개발교류회와의 정기적인 상호방문 및 기술교류를 통해 선진 제조 기술을 도입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실제 납품까지 이어진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해외진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향후 진출계획을 공유하고, 정부 및 중기중앙회 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기문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백두포럼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국내시장에만 머물지 않고 더 넓은 세계시장으로 눈을 돌렸으면 하는 바람에서 시작했다"며 "지난 16년간 해외 중소기업 관련 단체들과 꾸준히 교류하며 쌓아온 신뢰와 협력 기반은 백두포럼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앞으로는 단체 간 교류를 넘어 개별 업종 및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대되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벤처기업 10곳 중 7곳, '업무 집중' 경험

벤처협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조사'
절반 이상 평균 주 41~52시간 근무
근로시간제도 활용 기업 48% 그쳐

벤처기업 10곳 중 7곳 가량은 제품·서비스 개발 등으로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집중 기간 중 주요 담당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2시간'이 가장 많았다.

이런 가운데 벤처기업들은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운영 절차 개선 등을 시급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벤처기업협회가 온라인 설문과 심층 인터뷰를 통해 벤처기업 16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운영 현장 애로 조사'를 실시해 19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162개사 가운데 67.9%인 110개사는 최근 1년간 '업무 집중'을 경험했다. 업무 집중의 주요 원인으로는 '제품·서비스 개발 또는 R&D 일정'(51.8%)이 가장 많았고 '고객사 납품·계약 일정'(47.3%), '프로젝트 마감'(43.6%) 순이었다. 업무 집중 지속 기간은 '1~2주'(32.7%)가 가장 많았다.

업무 집중 기간 중 주요 담당 인력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9~52시간'(32.7%)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41~48시간'(24.5%)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근로시간제도' 활용은 미미했다. 업무 집중 경험 기업 중 절반에 못미치는 48.2%만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했다. 26.4%는 활용을 검토했지만 사용하지 못했고 '활용하지 않은 기업'도 25.5%에 달했다.

제도를 활용한 기업은 ▲탄력적 근로시간제(51.2%) ▲보상휴가제(42.7%) ▲선택적 근로시간제(40.2%) 순이었다.

활용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업무 발생 시점이 급박해 사전 도입이 어려움'(56.1%)을 꼽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업무 집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으로 '특정 기간 근로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60.5%)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절차 간소화'(31.5%) 등의 목소리도 컸다.

벤처기업협회 이민형 본부장은 "벤처기업은 연구개발과 제품 출시, 고객사 납품 등 특정 시기에 소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업무가 집중되는 특성이 있다"며 "기업들이 긴급·단기 업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 유연근로시간제의 도입·운영 절차를 개선하고 나아가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 단위 등으로 확대하는 근로시간 총량관리제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지난 18일 부산 남구 BNK부산은행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오른쪽부터)권형택 기보 이사장, 강승준 신보 이사장,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 김성주 BNK부산은행장, 황재철 BNK경남은행 부행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보

기보, 창업·스타트업 지원위해 전방위 행보

서울대 창업지원단과 기업 공동발굴
BNK부산·경남銀과 400억 협약보증
Npay 스타트업 플랫폼 활성화 등 추진

기술보증기금이 창업, 스타트업 등을 위해 전방위로 나서고 있다.

19일 기보에 따르면 전날 서울대학교 창업지원단과 '서울대학교 기술 기반 유망 혁신스타트업 공동발굴·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대의 우수한 기술창업 인프라와 기보의 기술금융 역량을 연계해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고, 대학의 연구성과를 활용해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서울대는 학내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기보에 추천하고, 기보는 추천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스타트업 특례보증 ▲투자 연계 ▲기술·경영컨설팅 등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협약을 계기로 우수 창업기업의 상호 추천과 지원성과 공유 등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모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망 기술창업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과는 '청년창업 넥스트웨이브(NEXT-WAVE)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기보는 협약은행의 특별출연금과 보증료지원금을 재원으로 총 4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보는 협약보증을 통해 지원 대상기업에 ▲보증비율 우대(3년간) ▲고정보증료 적용(0.3%, 만 39세까지 최대 3년간)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협약은행은 보증료(0.3%p, 3년간)를 지원한다. 이에 따라 해당기업은 3년 동안 보증료 부담 없이 기술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기보의 기술보증 요건을 충족하는 신기술사업자 중 실제경영자가 만 17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업 후 7년 이내 기술창업기업이다.

이와 별도로 기보는 지난 17일엔 네이버페이, 코드박스와 '엔페이(Npay) 스타트업 플랫폼 활성화 및 모험자본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도 맺었다.

'Npay 스타트업'은 금융감독원·중소벤처기업부·Npay·코드박스가 공동 추진해 지난 7월 출범한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으로, Npay와 코드박스가 운영하고 있다. 증권사·벤처캐피탈(VC)·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정보와 기업설명회(IR) 자료를 확인하고 투자대상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기보 지원기업의 민간 후속 투자유치 지원 ▲플랫폼 내 '기보 지원기업 전용관' 운영 ▲공동 IR 및 데모데이 등 투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공동 홍보 및 협력사업 발굴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승호 기자

삼표산업-장학건설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적용 확대 '맞손'

삼표산업이 하이엔드 건축 현장으로 특수 콘크리트 공급을 넓히며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삼표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지난 18일 서울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장학건설이 시공하는 하이엔드 주거와 상업·문화시설 현장에 삼표산업의 대표 VAP 브랜드인 '블루콘(BLUECON)' 시리즈를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김승호 기자

효성벤처스, 유망기업 '솔닥·앳홈' 투자

벤처투자와 조성한 2호 펀드 통해
첨단기술 분야 유망기업 투자

효성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효성벤처스가 디지털 헬스케어와 뷰티테크 분야 유망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효성벤처스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솔닥'과 뷰티테크 기업 '앳홈'에 투자를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지난 2024년 한국벤처투자와 공동 조성한 2호 펀드 '스타트업코리아 효성딥테크투자조합'을 통해 이뤄졌다. 해당 펀드는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첨단기술 분야의 유망기업을 주요 투자 대상으로 한다.

솔닥은 비대면 진료 예약과 접수, 처방, 의료용품 배송, 요양비 청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이다. 자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을 기반으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

오는 12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사업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의료용품 유통과 정부·기업 대상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등으로 사업 영역을 넓혔다.

앳홈은 음식물처리기 등 소형가전과 가정용 뷰티기기를 개발·판매하는 기업이다. 음식물처리기 브랜드 '미닉스(MINIX)'와 홈뷰티 디바이스 브랜드 '톰(THOME)'을 운영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

우수조달 제품지정 (제 2026120호)

28 AI INNOVATION

All-in-One AI/연계 플랫폼 초월기업

Leading AX Platform

온프레미스 &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등 기업

LLaMON AX AI플랫폼
- Advanced RAG Graph RAG
- LLM 모델 최적화 및 튜닝 LLM/MLOps
- 에이전트빌더 MCP/A2A
- Document AI
- VLM OCR Voice
- 디지털집현전 AI 민원상담 AI
- AX 복지/예산 복지상담·안내 예산 심의 등

MESIM AX AI연계통합플래폼 우수조달제품
- MCP 게이트웨이
- API 게이트웨이
- ESB 연계통합
- DevOps 개발운영 자동화
- 망간 보안연계
- 모니터링 Observability

KLEVER 디지털트윈 휴먼플랫폼
- 자율주행 교통
- 도시 산단 건설
- 철도 항공 드론
- 디지털휴먼 플랫폼
- 레이더검지 AI영상검지

조달우수제품 AI연계통합제품(MESIM AX)을
수의계약 또는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간편하게 구매가능

METABUILD

본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2 **2사옥**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교통자율주행 센터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08 **대전지사** 대전광역시 유성구 지족로364번길 19, 701호
T 02.598.3327 | **F** 02.598.3329 | **Email** support@metabuild.co.kr **www.metabuild.co.kr**

빅게임사 대신 AI·인디 전면에… 지스타, 게임산업 새바람

부산 벡스코서 '지스타' 개막
전 세계 41개국 1237개사 참가
메인 스폰서에 뤼튼테크놀로지스
산업 아우르는 교류의 장으로 확장
중기 전시·글로벌 진출 기회 확대



지스타2026 현장 /최빛나 기자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 2026'이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 지스타는 인공지능(AI) 기업의 첫 메인 스폰서 참여와 해외 게임사의 존재감 확대, 인디게임 전시 강화 등을 앞세워 게임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조명한다.

19일 지스타조직위에 따르면 올해로 22회째를 맞은 지스타 2026은 오는 22일까지 나흘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주최하고 지스타조직위원회와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에는 41개국 1237개사가 참가해 총 3445개 부스를 운영한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AI 기업 뤼튼테크놀로지스가 메인 스폰서로 참여했다는 점이다. 게임사 이외의 기업이 지스타 메인 스폰서를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뤼튼은 AI 캐릭터·스토리 플랫폼 '크랙'을 앞세워 생성형 AI와 게임형 콘텐츠가 결합한 새로운 이용자 경험을 선보인다.

게임업계에서는 이번 참여가 AI 기술이 게임 개발을 지원하는 도구를 넘어 콘텐츠 창작과 이용자 경험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주요 게임사들의 신작 경쟁도 본격화됐다. 크래프톤은 국내 게임사 가운데 최대 규모의 전시 공간을 마련하고 'PUBG: 배틀그라운드'를 비롯해 '타래: 언바운드', '에이지 트위스터', '왈츠앤잼', '템빨용사' 등 5종을 선보인다. 웹젠은 웹소설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신작 '디펜스 게임의 폭군이 되었다: LAST STAGE'를 공개하고 관람객을 대상으로 시연에 나선다.

해외 게임사들의 참여도 주목된다. 호요버스는 '쁘띠플래닛'과 '붕괴: 넥서스 아니마'를 국내 관람객에게 선보이며 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 코에이 테크모와 세가, 넷이즈게임즈 등 글로벌 게임사들도 전시에 참여해 관람객들과 접점을 넓힌다.

반면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주요 대형 게임사들의 대규모 전시 참여가 제한되면서 올해 지스타는 기존 대형 게임사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디게임 생태계 확대도 주요 특징이다. 인디 쇼케이스 2.0은 250개 부스 규모로 마련됐으며 국내외 106개 개발사가 참여한다. 스팀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중소 개발사들이 해외 이용자와 만날 기회도 넓혔다.

게임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 콘퍼런스 'G-CON 2026'도 19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김형태 시프트업 대표를 비롯해 국내외 게임 개발자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참여해 게임 개발과 IP 확장, 산업 변화에 대한 의견을 공유한다.

기업 간 거래(BTB) 전시는 21일까지 운영되며 게임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투자·사업 협력을 위한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된다. 네이버 치지직을 통한 온라인 중계도 병행해 현장을 찾지 못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지원한다.

올해 지스타는 신작을 직접 체험하는 게임쇼 본연의 역할을 유지하면서 AI와 글로벌 플랫폼, 인디게임까지 아우르는 산업 교류의 장으로 외연을 넓혔다. 국내 게임산업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가늠할 수 있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부산=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통신사, 수험생 AI·문화 혜택으로 고객몰이

SKT, 'SBS 가요대전' 방청권 제공
KT, 구글 AI 플러스 1개월 이용권
LGU+, 추첨 통해 여행상품권 증정



SK텔레콤 모델들이 수험생 고객을 위한 혜택들을 안내하고 있다. /SK텔레콤

통신 3사가 수험생을 포함한 Z세대 공략에 나선다. AI 서비스 체험과 단말 구매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통해 고객 접점을 넓히는 모습이다.

1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나는 11월 1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험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SK텔레콤은 수험생 인증을 통해 혜택을 제공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2006년생부터 2008년생 고객이 대상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AI 서비스 혜택을 내세웠다. SK텔레콤은 수험생 고객 선착순 5000명에게 구글의 AI 서비스인 구글 AI 플러스(400GB) 2개월 이용권을 제공한다. KT도 12월 한 달간 같은 서비스를 1개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6 시리즈와 폴더블8 시리즈를 이용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AI 버킷리스트 챌린지'를 진행한다. 구글 AI '제미나이'를 활용해 여행이나 취미, 자기계발 등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제작하고 SNS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문화·여가 혜택도 다양하다. SK텔레콤은 12월 24~25일 열리는 '2026 SBS 가요대전 30주년' 방청권 150장을 제공한다. 그라운드시소 인기 전시 예매권은 30% 할인하며, 신규 개통이나 기기변경을 한 수험생 선착순 5000명에게는 롯데시네마 영화관람권 2매를 증정한다.

KT는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과 스타벅스 음료를 제공하고, 유튜브·티빙·디즈니플러스 등 OTT와 생활 혜택을 결합한 구독팩 가입 고객에게 네이버페이 3000원권을 지급한다. LG유플러스는 버킷리스트 챌린지 참여자 전원에게 다이소 모바일 상품권 2만원권을 제공한다. 추첨을 통해 최대 500만원 상당의 하나투어 여행 상품권과 갤럭시 탭 S12+, 닌텐도 스위치2 등도 증정한다.

스마트폰 구매·교체 혜택도 눈에 띈다. KT는 행사 기간 휴대폰을 개통한 고객을 추첨해 대한항공 기프트카드 200만원권과 영화예매권 등을 제공한다. 갤럭시 구매 고객 500명에게는 무신사머니 10만원을 지급한다. KT 다이렉트샵에서는 아이폰18 프로와 갤럭시 Z 폴드8을 구매하고 일정 요금제에 가입하면 최대 20만원을 추가 할인한다. 케이스티파이 상품권도 증정한다.

SK텔레콤은 신규 개통·기기변경 수험생에게 해외 로밍 '바로 요금제' 5000원 할인권을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갤럭시 S26·폴더블8 이용자를 대상으로 AI 챌린지를 열어 최신 단말의 AI 기능 활용을 유도한다. 참여자에게는 쇼핑 상품권뿐 아니라 노트북과 태블릿 등 경품도 제공한다.

/조민선 기자 msjo@

일레븐랩스, 대화 인식 오류 43% 개선

정확도 높인 '스크라이브 v3' 출시
화자 구분부터 대화 맥락까지 파악

일레븐랩스는 녹음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스크라이브 v3'와 실시간 음성 인식 모델 '스크라이브 v3 라이브'를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일레븐랩스 자체 평가 결과, 스크라이브 v3는 이전 모델인 스크라이브 v2보다 단어 인식 오류를 27% 줄였으며, 스크라이브 v3 라이브 역시 기존 스크라이브 v2 리얼타임 대비 오류를 43% 줄였다.

특히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대화에서 발언자를 구분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스크라이브 v3는 3명 이상이 참여하는 녹음 환경에서 화자 분리 오류를 이전 모델보다 17% 줄였다.

실시간 대화에서 상대방이 말을 끝냈는지 판단하는 기능도 개선했다. 이번 모델은 음성과 대화의 전후 맥락을 함께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이 잠시 말을 멈추더라도 AI가 대화에 끼어드는 상황을 줄이도록 설계했다. 기존에는 침묵 시간을 기준으로 발화 종료 여부를 판단했다.

스크라이브 v3는 브랜드명과 약어, 전문 용어 등을 최대 1000개까지 등록할 수 있고 날짜와 숫자 등의 표기 방식도 지정할 수 있다. 실시간 모델은 대화 중 언어가 바뀌는 상황을 지원하고,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를 미리 등록하는 기능도 제공한다.

네덜란드 에너지 기업 에네코가 스크라이브 v3 라이브를 고객 상담용 음성 에이전트에 시험 적용한 결과, 번지 인식 정확도가 약 15% 높아졌다.

기업 고객을 위해 데이터 보안 기능도 강화했다. 일레븐랩스는 유럽연합(EU)과 인도, 싱가포르에 독립된 데이터 처리 환경을 제공하며, 요청 처리가 끝나면 음성과 텍스트 데이터를 영구 삭제하는 '제로 리텐션 모드'를 지원한다.

/조민선 기자

가트너
"내년 AI 지출 4조달러"

AI 열풍에 인프라 확대 전망

가트너는 내년 전 세계 인공지능(AI) 인프라 지출이 올해보다 53% 증가한 약 2조4000억달러(약 319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가트너가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체 AI 지출은 47.5% 늘어난 약 4조달러(약 5320조원)로, 이 가운데 59%를 인프라가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프라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AI 최적화 서버 지출은 올해 5276억달러(약 702조원)에서 내년 9572억달러(약 1273조원)로 81.4% 늘어날 전망이다. 가트너는 대형 클라우드 기업인 하이퍼스케일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임대 전문 클라우드 기업인 네오클라우드 사업자가 AI 인프라를 계속 늘리고 있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메모리 가격이 치솟는 '멤플레이션'으로 AI 최적화 서버 가격이 오른 것도 이유로 들었다.

/김보민 기자 kbm@

SKB, 해저케이블 양자보안 시험망 구축

SJC2의 부산-싱가포르 구간

SK브로드밴드가 부산과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해저케이블에 양자보안 국제 시험망을 구축한다. 양자컴퓨터 발달로 기존 암호체계가 위협받는 상황에 대비하고, 향후 국내 양자보안 기술의 해외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SK브로드밴드는 아시아 해저케이블 SJC2의 부산-싱가포르 구간에 양자보안 국제 시험망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 고도화·확산 사업에서 해외 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와 해외 현지 구간은 양자키분배(QKD), 부산~싱가포르 장거리 국제 구간은 양자내성암호(PQC)를 적용한다. SK브로드밴드는 이번 사업의 해외 거점 수행기관으로 나서 싱가포르, 폴란드, 불가리아의 양자 테스트베드와 연계해 실증을 추진한다.

개방형 양자 테스트베드는 기업과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갖추기 어려운 양자암호통신 시험망과 고가의 측정 장비를 함께 쓰며 기술·제품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증 공간이다.

SK브로드밴드는 양자키분배(QKD)와 양자내성암호(PQC)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양자보안 기술을 사용해 한국과 싱가포르 해저케이블 구간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송하는 '심층 방어'를 검증한다. 국산 양자보안 기술과 장비가 해외에서도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이에 따라 해저케이블 구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위협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향후 양자컴퓨터 고도화시 암호화된 정보를 미리 수집해 뒀다가 이후 해독하는 '선(先)수집, 후(後)해독' 위협에 대비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코인 한파에 두나무·빗썸 동반 적자… 가상자산 시장 '흔들'

두나무·빗썸 3분기 영업적자
거래 위축에 매출 60% 넘게 감소
금리·ETF 수급 변화 '변수'



업비트와 빗썸의 실적 악화와 비트코인·알트코인 가격 약세를 표현한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업비트와 빗썸이 올해 3분기 나란히 영업적자를 냈다. 거래가 줄면서 수수료 수입이 급감한 결과다. 비트코인 가격도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서는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비트코인의 향후 전망에는 그림자가 드리우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감독원에 제출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3분기 매출은 151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7% 줄었다. 영업손실은 35억원으로, 업비트 출범 이후 첫 분기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빗썸도 매출이 69.7% 감소한 594억원에 그쳤고 81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거래소에 남아 있는 원화도 줄었다. 두 회사의 회원 예치금 합계는 지난해 말 7조8679억원에서 지난 9월 말 5조3608억원으로 2조5071억원(31.9%) 감소했다. 예치금은 고객이 거래소에 맡긴 원화다. 거래액과 같은 수치는 아니지만, 고객이 코인을 사는 데 쓸 수 있는 돈이 줄었다는 의미다.

거래소의 적자는 지난 3분기 성적표다. 문제는 거래를 다시 늘릴 만한 가격 반등이 지금도 쉽지 않다는 점이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주요 통로인 미국 현물 ETF에서 자금 유출이 이어지자 씨티그룹도 전망을 낮췄다.

씨티그룹은 18일(현지시간) 비트코인의 향후 12개월 목표 가격을 11만3000달러에서 9만9532달러로 약 12% 하향했다. 이더리움 목표 가격도 3028달러에서 2838달러로 내렸다. 기관투자자의 수요가 약해지고 현물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간 점을 반영했다. 새 목표가는 당시 비트코인 가격인 6만4000~6만5000달러보다는 높다. 가격이 오를 여지는 있다고 보면서도 이전만큼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물 ETF의 자금 흐름을 좌우할 변수로는 미국 금리가 꼽힌다.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18일(현지시간) 12월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포인트 올릴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금리가 오르면 예금이나 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이자가 늘어난다. 이자가 붙지 않는 비트코인을 보유할 유인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김민승 디지털엑스 리서치센터장은 비트코인이 미국 금리와 증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자산이 됐다고 봤다. 현물 ETF가 생기면서 기관투자자들이 증권 계좌로 비트코인을 사고팔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기관투자자가 증권 계좌로 사고파는 자산은 주식처럼 움직인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금리"라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 반도체주가 급락했을 때 비트코인도 함께 밀린 점을 사례로 들었다.

비트코인의 반등에 금리와 기관 자금이 중요하다면, 알트코인에는 새로 들어올 투자자를 끌어모을 이유가 필요하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자산인 알트코인은 대체로 비트코인 가격을 따라 움직이지만, 그 자체로 시장을 키울 동력이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김 센터장은 "기술이 나아져도 그 기술로 할 수 있는 일이 새롭지 않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누구나 코인을 발행해 투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한 초기코인공개(ICO), 은행 없이 예금과 대출을 하는 탈중앙화 금융(디파이)이 새로운 투자자를 불러왔다. 최근 이더리움과 솔라나에서도 기술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를 계기로 사람들이 새롭게 이용할 서비스가 늘어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최운열 "지정감사제, 감사 독립성 높여"

〈공인회계사회 회장〉

세계회계사대회서 회계개혁 경험 발표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37위로 상승
"감사품질 중심 경쟁 시장 만들어야"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회계개혁 이후 최하위에서 37위로 올랐다.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지정 기간이 끝난 뒤 다시 나타나는 감사보수 인하 압박을 과제로 꼽았다.

19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2026 세계회계사대회'에서 최 회장은 '감사품질과 규제 혁신'을 주제로 한국의 회계개혁 경험을 발표했다. 그는 "주기적 지정제의 궁극적 목표는 감사인에 대한 경영진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제한해 감사인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품질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 대형 분식회계 사건으로 재무보고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뒤 2018년 11월 개정 외부감사법을 시행했다. 핵심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간 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면 이후 3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식이다.

최 회장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의 영향력이 큰 기업에서 감사인을 직접 선임·교체하는 구조가 감사인의 독립성을 약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문제를 엄격하게 지적하는 감사인이 교체될 수 있는 만큼, 일정 기간 회사의 선택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다.

그는 제도 도입 당시 기업의 선택권 침해와 감사보수 상승을 우려하는 반대가 있었다고 돌아봤다.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는 없는 한국 특유의 문제를 풀기 위한 특단의 해결책이었다"고 말했다. 감사보수 역시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이 소개한 수치에 따르면 개혁 5년 만에 지정감사인을 배정받은 상장사 비중은 8.4%에서 54%로 늘었다. 평균 감사보수는 1억2100만원에서 2억4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는 2017년 조사 대상 63개국 중 최하위에서 2021년 37위로 상승했다.

최 회장은 지정감사를 마친 기업들이 감사인을 다시 자율적으로 선임하면서 회계법인 간 가격 경쟁과 감사보수 하락 압박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계법인들이 감사 단가보다 품질을 바탕으로 경쟁하는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 좌장을 맡은 최중경 IFRS 재단 이사는 개혁 이전 일부 기업이 감사 역량보다 낮은 보수를 기준으로 감사인을 선택했다고 진단했다. 최 이사는 주기적 지정제를 시장의 문제가 드러난 상황에서 도입한 차선책으로 평가하며, 기업의 감사인 선택과 지배구조가 성숙할 때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외 참석자들도 한국의 제도를 평가했다. 인 더취안 중국공인회계사회 소속 회계사는 지정제가 감사 실패를 막고 회계업계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앤드류 리커먼 런던비즈니스스쿨 교수는 한국의 회계개혁이 경제적 성취를 지속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허정윤 기자

엔비디아 악재에도 美개미, 5950억 순매수

해외주식 Click

전주 대비 40% 늘어

창업자가 불명예 퇴진한 엔비디아를 두고 서학 개미(해외 주식 개인 투자자)들은 위기보다 기회에 무게를 실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12~18일 서학 개미 순매수 1위는 엔비디아(4억4698만달러·약 5950억원)였다. 직전 주(3억1974만달러)보다 약 40% 늘어난 규모로, 주가가 흔들릴수록 매수세는 오히려 거세졌다.

시장 기대를 웃돈 실적도 리더십 공백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했다. 젠슨 황 전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간첩 의혹 불륜' 스캔들 속에 지난 12일(현지시간) 사임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사임 직전인 11일 173.73달러에서 18일 150.96달러로 일주일 새 13.1% 떨어졌다. 17일 발표된 3분기 매출은 1158억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3% 늘며 시장 전망치(1091억달러)를 크게 웃돌았지만, 이튿날 주가는 오히려 2.89% 내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젠슨 황 부재에 따른 경영 불확실성은 해소되지 않아 본격적인 투자심리 회복에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황 전 CEO 퇴진이 남길 파장을 두고 증권가의 진단은 엇갈린다. DB증권은 "단기적으로는 투자심리 충격이 크지만 구조적 악재로 단정하기는 이르다"며 "국내 메모리 업체 입장에서는 수요 주체가 범용칩(GPU)에서 빅테크 자체 맞춤형 칩 등으로 분산되는 과정으로 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DS투자증권은 "후임 경영진의 기술 로드맵 실행력과 공급망 조율 능력이 확인되기까지 엔비디아에 대한 보수적인 투자 접근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문제의 뿌리를 스캔들 너머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로이터통신은 엔비디아 주가가 사생활 논란 이전부터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협력사와의 순환금융 구조와 인공지능(AI) 사업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인 위험으로 짚었다.

/김아영 기자 aykim@

서학 개미, 美 대표지수 ETF 9조 담았다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의 1.8배

미국 기술주가 조정받는 동안에도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미국 대표지수 상장지수펀드(ETF)를 꾸준히 사들였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미국 대표지수 ETF 3종에 올해 들어 유입된 개인 자금은 9조원을 넘어 지난해 연간 순매수액의 1.8배에 달했다.

19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한국거래소 자료를 집계한 결과, 18일 기준 'TIGER 미국S&P500 ETF', 'TIGER 미국나스닥100 ETF',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의 연초 이후 개인 순매수 합계는 9조2825억원이다. 올해 215거래일 가운데 207일 동안 3종 합산 기준 순매수를 기록했다. 3월 19일 이후에는 165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이어졌다.

상품별 개인 순매수액은 TIGER 미국S&P500 ETF가 5조446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TIGER 미국나스닥100 ETF는 2조5300억원,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는 1조3061억원으로 집계됐다. 하반기에만 3종에 3조7793억원이 순유입됐다.

자금 유입에 따라 3종의 순자산 합계는 연초 22조3075억원에서 18일 35조8293억원으로 늘었다. 이들 상품의 개인 순매수액은 올해 국내 상장 해외주식형 ETF 전체 개인 순매수액 25조6876억원의 약 36%를 차지했다.

김상율 미래에셋자산운용 글로벌ETF 운용본부장은 "미국 대표지수 ETF 3종에 올해 9조원이 넘는 개인 자금이 모인 것은 미국 대표지수가 국내 투자자들에게 자산 형성의 기본 축으로 자리 잡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퇴직연금 불공정 영업 적발

가입 기업 규모 따라 상품 안내 소홀

퇴직연금 사업자가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대기업이나 주요 고객에게 우선 제시하고, 중소기업에는 안내를 소홀히 한 사례가 금융감독원 검사에서 확인됐다.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한 퇴직연금 사업자의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가입 기업 중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의 비중은 약 20%였지만, 이들의 고수익 상품 가입 건수는 전체의 5~10% 수준에 그쳤다. 금감원은 이날 4대 금융협회와 주요 퇴직연금 사업자 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가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상품 안내가 달라지는 관행을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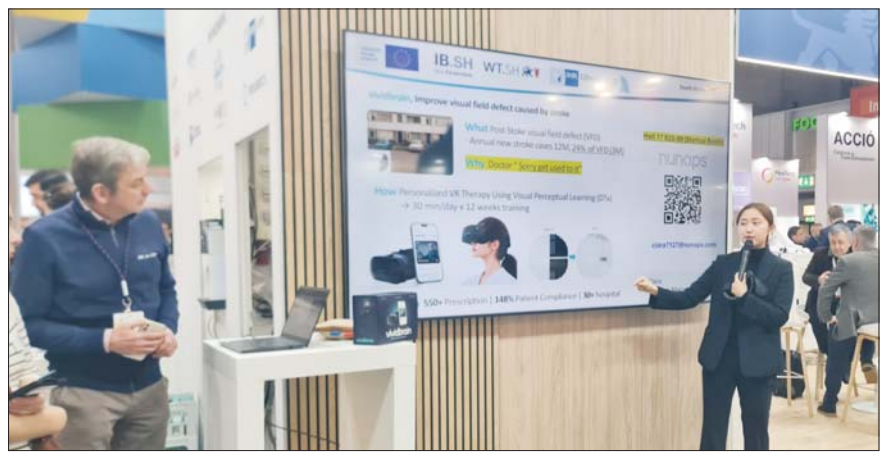
금감원은 연말에 원리금보장상품의 만기가 집중되는 점을 이용해 특정 가입자에게만 변칙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계했다. 연금저축펀드 고객의 순입금을 유도하기 위해 이벤트성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관행 역시 문제로 꼽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사업자 14곳이 순입금 고객을 대상으로 1만원에서 300만원 수준의 이익을 제공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사례도 제시됐다. 한 사업자에서는 근로자 50명 미만 기업 가입자의 75%가 상품 만기 후 다른 상품과 비교하지 않고 같은 상품에 재가입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만기 시점에 더 유리한 대체상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거나 비교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허정윤 기자

의료시장 세계 2위 유럽 '정조준'
코트라, K-의료기기 수출 다변화

'메디카' 연계 'K-메디테크 데이'
국내 의료기기 기업 46곳 참여
유럽 바이어와 총 270건 상담
치밀한 현지화 전략 병행도 필수



코트라는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6)'와 연계해 국내 의료기기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K-메디테크 데이' 수출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국내 기업 관계자가 국제 의료기술 발표회에서 자사의 디지털 치료기기를 소개하고 있다. /코트라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아우르는 K-의료 제품의 대유럽 수출이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는 가운데,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이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를 발판 삼아 유럽 시장 영토 확장에 나섰다.

유럽은 최근 K-의료 제품 수출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핵심 시장 중 하나다. 지난해 대유럽 의약품과 의료기기 수출액을 합산한 K-의료 제품 수출액은 69.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최근 3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6.8%에 달했다. 기존 의료 인프라 현대화 수요에 더해 팬데믹 이후 의료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과 한국 의료 전반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유럽 의료기기 시장 자체의 외형과 성장성도 주목할 만하다. 유럽의료기기산업협회(MedTech Europe)의 '유럽 의료기술 산업 현황 2026'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유럽 의료기기 시장은 1730억 유로 규모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유럽 각국이 인구 고령화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면서 진료 효율성과 원격·데이터 기반 관리를 높일 수 있는 디지털 전환 및 첨단 의료기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팬데믹 당시 겪은 의료공급망의 병목과 불안정성을 교훈 삼아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낮추려는 정책·산업적 기조가 확산되면서 한국 기업들에게는 시장 진입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

실제 주요 유럽 국가로의 한국 의료기기 수출도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25년 의료기기 생산·수출·수입 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과 프랑스로 향한 우리나라 의료기기 수출은 전년 대비 각각 8.6%, 12.8% 늘어나며 성장세를 뒷받침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이 같은 수출 확대 흐름을 이어가고 시장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11월 16일부터 나흘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린 세계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메디카(MEDICA 2026)'와 연계해 'K-메디테크 데이' 수출 전시상담회를 열었다.

이 행사에는 국내 의료기기 기업 총 46개사가 참가했으며, 이 가운데 37개사가 수출상담회에 참여해 유럽 현지 바이어들과 일대일 비즈니스 미팅을 진행했다. 코트라는 전시 개최지인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지역 무역관들과 긴밀히 공조해 잠재력 있는 현지 바이어를 사전에 발굴하고, 국내 기업과의 수출 및 기술협력 상담을 주선했다.

현장에서는 유럽 바이어 160여 개사와 국내 기업 간 총 270건의 상담이 성사됐으며, 이를 통한 계약추진액은 300만 달러에 달했다. 현지 바이어들은 병원 및 임상 현장의 효율화와 연결된 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과 첨단 진단·치료기기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부 상담은 단순 제품 문의를 넘어 구체적인 수출 조건 협의와 기술협력 논의로 이어지며 실질적인 사업화 가능성을 높였다.

코트라는 단발성 상담에 그치지 않고 유럽 시장 진출 과정에서 기업들이 마주하는 구조적 허들을 낮추기 위해 ▲유럽 바이어 수출상담회 ▲유럽 의료기기 인증 상담 ▲국제 의료기술 발표회 등 다층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유럽연합 의료기기 규정(MDR) 강화 이후 까다로워진 인증 요건과 등록 절차는 국내 중소·중견 의료기기 기업에 대표적인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행사 기간 동안 현지 전문 상담기관이 참여해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MDR 인증 요건과 등록 절차, 기술문서 및 규제 대응 방향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하며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했다.

다만 현지 전문가들은 기술력만으로는 시장 안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치밀한 현지화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상담에 참여한 독일 기업 '메디칼 밸리(MEDICAL VALLEY)' 관계자는 "한국 의료기기의 혁신성은 독일 시장에서 강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지려면 독일의 시장 수요와 비즈니스 관행을 이해하고 현지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연재 코트라 유럽지역본부장은 "유럽 의료시장은 고령화와 디지털 전환, 공급망 재편 등으로 새로운 의료기술과 협력 파트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이 우수한 기술력이 실질적인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럽 의료기기 인증 대응부터 현지 바이어 발굴, 기술협력까지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시장 다변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원자력 전력, 내년부터 5년간 정부승인 기준가격으로 거래

1월 1일부터 정부승인차액계약 적용
거래량 32% 핵심 전원에 첫 도입
현물 위주→계약·시장 병행 구조 전환



부산 기장군 임랑해수욕장에서 바라본 고리원전 3~4호기 모습. /뉴시스

정부가 2027년 1월 1일부터 5년간 주력 전원인 원자력발전소에 정부승인차액계약(VC·Vesting Contract)을 처음 적용한다. 원자력발전의 전력거래에 기준가격을 미리 정하고 사후 실제 시장가격과의 차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현물시장 중심이던 전력거래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형태로 바꾸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전력 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예측 가능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전력공사 경인건설본부에서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 체결 기념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 한수원과 한전은 각각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전 정부승인차액계약서에 서명하고, 기후부가 이를 제출받아 지난 13일 전기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정부승인차액계약은 한수원과 한전이 계약전력량과 기준가격을 미리 정한 뒤, 실제 전력시장가격(SMP 등)과의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구조다. 전력거래 자체는 전력거래소 급전지시에 따라 기존처럼 시장에서 이뤄지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한수원이 차액을 한전에 돌려주고 낮으면 한전이 차액을 한수원에 지급한다.

지난 2014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된 정부승인차액계약은 2015~2020년 포스코에너지(0.6%)와 현대그린파워(0.9%) 부생가스 발전기에 제한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전력시장 거래량의 32.1%를 차지하는 핵심 전원에 정부승인차액계약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등을 통해 현물 위주 전력시장을 계약·시장 병행 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혀 왔으며, 재생에너지의 경우 내년 1월부터 공급의무화(RPS) 제도가 폐지되고 고정가격계약으로 전환된다.

기후부는 원전 수익을 합리적으로 규율해 절감 비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동시에, 발전사업자인 한수원과 판매사업자인 한전의 재무 예측 가능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세진 기후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력시장 선진화가 중요하다"며 "현물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를 계약과 시장이 조화되는 시장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용석 한수원 부사장은 "원전 차액계약을 통해 확보한 재무 안정성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투자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며 "투명한 원가관리와 안정적인 원전 운영으로 전력공급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백우기 한전 부사장은 "전력구입비 안정성을 높이고 합리적 원가에 기반한 원전 전력 구매체계를 구축한 데 의미가 크다"며 "계약의 안정적인 이행과 제도의 실질적인 성과 구현을 위해 구매자로서 계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승인차액계약에 따른 실제 전력거래는 기후부 인가를 거쳐 2027년 1월 1일부터 개시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식품부, 북미 주류 유통망·B2B 시장 공략 본격화

뉴욕서 'K-푸드 수출 프론티어 출정식'
현장 수출 간담회, 업무협약 등 진행

농림축산식품부가 최대 농식품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K-푸드 수출 프론티어 출정식'을 열고 북미 주류 유통망과 외식·급식(B2B)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버진호텔에서 수출기업과 현지 유통·수입 바이어, 유관기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사에는 삼양·대상 등 수출기업과 H마트·한양마트·벨로팜스(Bello Farms)·왕글로벌넷 등 현지 유통·바이어,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수협 등이 함께해 '민·관 원팀(One-Team)' 협력 의지를 다졌다.

출정식에 앞서 열린 현장 수출간담회에서는 통관·환경 규제 대응, 물류비 부담 완화, 현지 맞춤형 마케팅 지원, B2B 공급망 확대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정부와 생산자, 기업, 바이어가 긴밀히 협력해 신선농산물 최초로 포도 수출 1억 달러 조기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며 "이러한 성공 방정식을 딸기, 배, 쌀가공식품 등 차세대 유망 품목으로 신속히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나온 애로사항은 지원 정책과 사업 개편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판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도 이어졌다. 한국포도수출연합·한국배수출연합은 미주 아시안 슈퍼마켓 체인 H마트와 신선농산물(K-Fresh) 유통 정보 교류 및 공급망 확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미동부 한식세계화추진위원회, 왕글로벌넷과 3자 MOU를 체결해 미국 외식·급식 시장 동향 공유와 한국산 식자재 연계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현장에서는 미국 시장 개척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장관 표창 8점, 공로상 2점)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샤인머스캣 코스트코·트레이더조 입점을 이끈 타미 서 ESU Farm LLC 대표, 대상 아메리카 박정준 부대표, 왕글로벌넷 이재석 이사, 자이언트 푸드시스템 장진호 대표, 한양마트 한택선 회장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농식품부는 19일(현지시간) 추수감사절 대목을 맞아 H마트 롱아일랜드시티점의 'K-Fresh' 판촉 현장을 점검하고, 20일에는 뉴욕 타임스퀘어 전광판 K-푸드 홍보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공급망·통상 변화 속 AI가 경쟁력 좌우"

KIAT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



전윤종 KIAT 원장이 2026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IAT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통상환경 변화라는 이중고 속에서 인공지능 전환(AX)을 중견기업의 돌파구로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산업통상부 주최로 '2026 중견기업 혁신 컨퍼런스'를 지난 18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견기업 주간을 맞아 열린 이번 행사는 '공급망 재편과 통상 리스크, AI로 산업의 파고를 넘다'를 주제로 진행됐다.

기조강연에 나선 최재붕 성균관대 교수는 '2027 AI 사피엔스 시대 중견기업 생존 전략'을 주제로 AI 확산에 따른 산업 경쟁 구도 변화와 중견기업의 대응 과제를 짚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이상욱 한양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재붕 교수,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 배순민 삼성SDS 상무, 임수진 BGF리테일 상무가 참여해 중견기업의 성장 전략과 AI 활용 방안을 논의했다.

주제별 강연에서 강문성 고려대 국제학부 교수는 통상정책 변화가 중견기업의 가격 및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고, 이지선 신성이엔지 대표는 스마트팩토리 내 AI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임수진 BGF리테일 상무는 AI를 업무에 도입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한 중견기업 사례를 공유했다.

전윤종 KIAT 원장은 "공급망과 통상 여건이 빠르게 바뀌는 가운데 중견기업이 AI를 생산과 경영에 어떻게 접목하느냐가 앞으로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며 "현장에 맞는 혁신 과제를 찾고 세계시장에서 새 기회를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Since 1996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건강창업의 새로운 기준!

대한민국 유통 명가 햇터그룹이 당신의 '성공창업'을 지원합니다.

30년 유통 노하우와 브레인TV 홍보 지원으로 검증된 건강 브랜드, 대한홍삼 건강백화점!



공식파트너 모집

불황에도 꺾이지 않는 30년 건강 비즈니스, 이제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하십시오.

자사 TV 방송국 광고 지원
브레인TV 채널 노출을 통한 강력한 마케팅

건강에 대한 모든 해답을 한 곳에!
명품 홍삼, 건강식품, 건강용품, 의료기기 등 검증된 라인업

유연한 창업 모델
무점포부터 대형 매장까지 맞춤형 컨설팅

최저 창업 비용 398만원
부담 없고 합리적인 창업비용으로 실질적인 기회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30년 노하우를 통째로 빌려드립니다.

상담 문의 환영 1522-7585

창업상담 방문을 하시는 모든 분께
- 무료 창업 컨설팅 제공
- 창업가이드북 증정
- 홍삼선물세트 198,000원 상당 증정

QR 스캔

대한홍삼(주)

대한홍삼[주] www.koreahongsam.co.kr
본사 : 서울시 금천구 가마산로 96 대륭테크노타운8차 601호
(가산디지털단지역 하차 ▶ 1호선 11번 출구 / 7호선 9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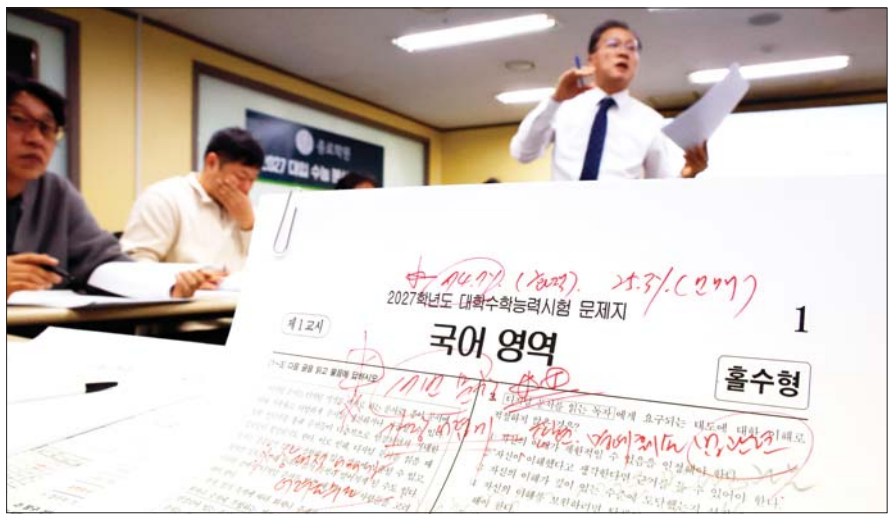
Since 1996
햇터그룹
Haetter Group

국어 작년보다 '쉬웠다'… 수학은 복잡한 계산에 '시간 부담'

2027 수능

국어, 지문 정보량 줄여 독해 수월
'언어와 매체' 상대적으로 어려워

수학, 작년 수준 또는 다소 까다로워
'확률과 통계' 복잡한 계산에 부담
공통·선택과목 고난도 문항으로 변별



19일 서울 양천구 종로학원에서 강사진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경향 분석을 하고 있다. /뉴시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어는 지난해보다 다소 쉽게 출제된 반면 수학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분석과 다소 어려웠다는 평가가 엇갈렸다. 국어는 전반적인 독해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언어와 매체 등 선택과목과 추론·적용 문항이 관건으로 꼽혔다. 수학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주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한 가운데, 복잡한 계산으로 시간 관리가 중요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 국어 영역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평이하게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 영역은 EBS 현장교사단이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했지만, 종로학원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국어, 언어와 매체 '상대적' 부담

EBS 현장교사단 분석에 따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올해 9월 모의평가보다 다소 쉽게 출제됐다. 지문에 담긴 정보량과 복잡성을 줄이고 핵심 정보를 명확하게 제시해 독해 부담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다만 여러 정보를 종합해 논리적으로 연결하거나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하는 문항을 통해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종로학원도 지난해 수능보다 전반적으로 쉬웠다고 분석했다. 문학과 독서 모두 평이한 수준이었지만 선택과목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화법과 작문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특히 시험 초반에 선택과목을 먼저 푸는 수험생이 많다는 점에서 언어와 매체 선택자들은 시작부터 부담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화법과 작문은 지난해보다 쉽게 출제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올해 수능 국어 선택과목 접수 비율은 언어와 매체가 25.3%로 지난해 31.6%보다 낮아진 반면, 화법과 작문은 74.7%로 지난해 68.4%보다 높아졌다.

주요 변별 문항으로는 독서 영역의 17번이 꼽혔다. 법률 관련 지문을 바탕으로 사실과 의견 표현의 차이, 법적 책임 등을 이해하고 사례에 적용해야 하는 문항이다. 종로학원은 독서 8번과 언어와 매체 37번도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했다. EBS 현장교사단은 문학 영역 30번을 변별력 있는 문항으로 평가했다.

EBS 연계 체감도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국어 영역의 EBS 연계율은 53.3%(45문항 중 24문항)다. 독서는 EBS 교재에 수록된 제재와 핵심 개념을 활용했고, 문학은 고전소설과 고전시가 대부분이 교재 수록 부분과 일치했다. 종로학원도 EBS 연계 체감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문제 풀이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분석했다.

◆수학, 작년 수준… 계산문항 어려워

수학 영역은 난도 평가가 엇갈렸다. EBS 현장교사단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선택과목은 지난해와 유사한 난도를 유지했다는 설명이다. 중위권을 겨냥한 중난도 문항부터 상위권 변별을 위한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배치해 선택과목 간 유불리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했다.

이에반해 종로학원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하거나 다소 어려웠고, 올해 6월·9월 모의평가보다도 어려웠다고 분석했다. 출제 유형은 지난해 수능과 모의평가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정답을 찾는 과정에서 복잡한 계산을 요구하는 문항이 있어 시간 부족을 느낀 수험생이 있었을 것으로 봤다.

선택과목별 난도에 대한 의견도 상이했다. EBS 현장교사단은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 간 난도 차이가 크지 않도록 각 과목의 특성에 맞춰 문항을 구성했다고 봤다. 특정 과목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출제는 아니었다는 평가다. 반면 종로학원은 미적분과 기하는 지난해와 비슷했지만, 확률과 통계는 계산 과정이 복잡해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확률과 통계 선택자들의 체감 부담이 다른 과목보다 컸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변별력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의 일부 고난도 문항을 중심으로 확보한 것으로 분석됐다. EBS 현장교사단은 공통과목 21·22번을 상위권 변별 문항으로 꼽았고, 종로학원 역시 공통과목 14·15·21·22번을 어려운 문항으로 지목했다. 선택과목에서는 EBS 현장교사단이 각 과목 30번을, 종로학원은 확률과 통계 29번과 미적분 30번, 기하 28·30번 등을 주요 문항으로 평가했다.

수학 영역의 EBS 연계율은 50%(30문항 중 15문항)다. EBS 현장교사단은 사교육에서 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 훈련한 학생에게 특별히 유리한 문항은 없었다며, 교육과정의 개념을 고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학습이 중요했다고 평가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metroseoul.co.kr

약대도 의대처럼 평가·인증 '의무화'

교육부, 20일부터 개정령 시행
전국 37개 약대에 동일 기준 적용
위반 시 모집정지·학과 폐지 처분

앞으로 약대를 운영하는 대학도 의학·치의학·한의학·간호학과 마찬가지로 인정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입학정원의 최대 100%까지 모집정지 처분을 받는다.

교육부는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2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국 37개 약학 과정을 운영하는 대학들도 다른 의료 교육과정과 같은 평가·인증 절차를 적용받는다. 약학 과정 운영을 시작하려는 대학은 개시 예정일 1년 6개월 전부터 1년 3개월 전까지 평가·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기존 인증 대학은 유효기간 만료 2년 전 이내에 다시 신청해야 한다.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있다. 대학은 평가·인증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매년 학생 모집요강에도 이 내용을 담아야 한다.

위반 시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 1차 위반 때는 해당 전공의 입학정원 100% 범위에서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2차 위반 때는 전공학과나 전문대학원을 폐지할 수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약학교육 분야에서도 다른 의료교육과정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하고 투명한 질 관리 체계가 갖춰지게 되었다"며 "전국 37개 약학대학이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서울교육청, 교원 호봉·채용 업무 자동화

디지털 기반 행정지원 확대
호봉획정 프로그램 기능 개선

서울시교육청이 교원 호봉 계산과 채용 절차 등 학교 현장의 반복적인 수작업 행정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통합지원과를 중심으로 디지털 기반 행정지원 체계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남부교육지원청 학교통합지원과 주도로 개발한 '교원 호봉획정 자동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11개 교육지원청의 호봉 업무 담당자들이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오류를 점검하고, 지원청 관내 학교의 시범 운영을 거쳐 현장 의견도 반영했다.

새 프로그램은 나이스(NEIS) 인사기록 파일을 등록하면 경력 입력부터 호봉 산정까지 자동으로 처리한다. 육아휴직과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경력 산입 등 변경된 규정을 반영하고, 학력과 경력 기간이 겹치면 알림을 제공하는 등 총 9개 기능을 개선했다.

채용에도 자동화를 적용한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이 개발한 업무자동화 프로그램 '바로채움ON봇'은 채용 공고 작성과 게시부터 응시원서 정리, 심사표 집계, 합격자 안내 문자 발송까지 6단계 업무를 자동 처리한다. 서울교육일자리포털과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등을 연동해 운영한다.

원어민 보조교사를 위한 모바일 웹 서비스도 마련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의 '웰컴온(WelcomeON)'은 숙소 생활과 외국인등록, 학교 근무, 주변 시설 안내, 생활 한국어, 긴급 연락 등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정보를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한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생활편의시설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어 일상 표현 84개도 음성으로 들을 수 있다.

/김수정 기자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어 열풍… 직업교육 협력 확대

교육부, 현지 방문단과 협력 논의
한국어반 직업학교 25곳으로 늘어
현지 정부, 교원 초청비 전액 부담

우즈베키스탄 직업학교가 한국어교육을 확대하고 있다. 현지 정부가 한국어교원을 직접 초청해 급여와 체류 비용 등을 부담하고, 한국의 직업계고 교육과정을 참고한 직업교육 협력도 추진한다.

교육부는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 도입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 관계자들이 오는 21일까지 방한한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단은 항공·소프트웨어(SW)·자동화 설비·전자 및 기계 분야 직업계고 4곳을 찾아 교육과정과 실습실 운영 등을 참관한다.

교육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등 관계기관과도 만나 직업교육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 방문. /교육부

한국어교육도 직업학교로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은 직업학교 학생들의 해외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한국어교원 초청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타슈켄트와 부하라, 사마르칸트 등 5개 지역에 한국어교원 6명이 파견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교원 급여와 왕복 항공료, 숙소, 보험 등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반을 운영하는 학교는 201곳이다. 이 가운데 직업학교는 25곳으로, 지난해 3곳에서 크게 늘었다. 우즈베키스탄 직업교육청은 내년 한국어교원 초청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수정 기자

청소년 시선으로 그리는 교육청 신청사

서울교육청, 20일 프로젝트 발표회

서울시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시선으로 신청사를 재해석하고, 실제 공간 운영 방안을 모색하는 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서울청소년, 교육청 신청사를 꿈꾸다' 프로젝트 발표회를 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신청사 공간을 탐색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디자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고등학생 60명이 총 8개 팀으로 나뉘어 신청사 1~3층의 주요 공간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을 마련했다.

제안에는 신청사 1층과 지하 1층을 잇는 커뮤니티 계단을 문화·소통 공간으로 바꾸는 아이디어가 담겼다. 계단에 피아노를 설치하고 전시와 공연을 열거나 소원을 적어 걸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날 발표회에서 각 팀은 공간 디자인 구상을 설명한다. 교육감과 교육청 관계자들도 참석해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후 3층 컨퍼런스룸에서 프로젝트 과정과 성과를 공유한다.

/김수정 기자

AI 시험 부정행위 파장… 초소형 카메라 등 판매 규제 강화

이커머스, 악용 우려 상품 점검
쿠팡·G마켓, 위장 카메라 판매 금지
11번가·롯데온, 검색어 관리 강화
알리익스프레스, 위반 판매자 제재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지를 촬영해 AI를 이용해 풀고 이를 다시 전송받는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가 관련 품목 단속에 나섰다.
/ChatGPT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논란이 확산하면서 이커머스 업계가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AI 스마트안경 등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주요 플랫폼들은 위장형 촬영기기의 판매를 금지하고 관련 검색어와 광고 문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부 전문 판매업체에서는 관련 제품을 여전히 판매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쿠팡과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은 최근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될 우려가 있는 상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만점을 기록한 수석 합격자 한(34)모씨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로 합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첨단 장비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거나 AI 스마트안경 등으로 외부와 정보를 주고받는 수법이 알려지면서 관련 제품의 온라인 유통 실태에도 관심이 쏠렸다.

이에 이커머스 업계는 관련 상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한편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광고와 홍보 콘텐츠까지 관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쿠팡은 마켓플레이스 운영정책에 따라 볼펜·시계·보조배터리 등 일상용품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촬영 여부를 외부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안경형 기기도 금지 대상이다. 현재 '펜카메라', '안경 카메라', '초소형' 등 관련 키워드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추가 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제휴 마케팅 서비스인 쿠팡 파트너스에서도 시험 부정행위 관련 상품의 홍보를 금지했다. 최근 회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의 부정행위 활용 방법을 안내하거나 암시할 경우 수익 지급 및 계정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G마켓도 위장형 카메라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이번 논란 이후 판매자 관리 사이트 'ESM+'를 통해 관련 기준을 재안내했다.

스마트안경의 촬영 표시등을 가리는 스티커나 커버도 판매 금지 대상이며, AI 안경이나 초소형 이어폰의 광고에 '커닝', '시험용' 등 부정행위를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도 제한한다.

11번가는 '몰래카메라', '히든카메라', '감청', '도청' 등을 금칙어로 지정하고 관련 상품과 상세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위반 상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에게도 제재를 가한다. 롯데온 역시 불법·유해 상품 관련 키워드를 검색 금지어로 지정하고 판매 부적합 상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설명에 시험 부정행위 활용 가능성을 암시하거나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의 판매를 금지한다. AI 기반 모니터링과 담당자 검토를 병행하며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상품 판매 중단과 판매자 계정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그러나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모든 제품을 규제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외부에서 답안을 전달받는 데 활용될 수 있는 이른바 '쌀알 이어폰'과 AI 스마트안경이 대표적이다. 두 제품 모두 정상적인 사용 목적이 있어 부정행위에 활용될 가능성만으로 판매를 금지하기는 어렵다. 판매업체들도 최근 부정행위 논란을 의식해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잇달아 게시하고 있다.

위장형 카메라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A업체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공지를 띄우고 "특정 목적에 맞게 개조하거나 맞춤 제작해 구매할 수 없다"며 "시험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에 관한 문의는 응대 없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위장형 촬영기기 등 악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에 대한 판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초소형 카메라 등이 시험 부정행위에 악용돼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한다며 온라인에서 부정행위를 조장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쿠팡, 친환경 포장재 상품 소비 촉진

25일까지 '포장을 보다' 기획전

쿠팡이 친환경 포장재 적용 상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오는 25일까지 '포장을 보다'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제조·유통업계가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상품 포장재 밸류체인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제조 기업이 제품 포장재 개선 방안을 고안해 적용하면 유통 기업은 지속가능성 평가를 거친 상품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방식으로 협력한다.

올해 해당 사업에 유통사로 새롭게 합류한 쿠팡은 무라벨 페트병, 재생원료 활용 포장재 등 친환경 포장재 확산과 소비자 인식 개선에 나선다.

쿠팡의 자체브랜드(PB) 담당 계열사 씨피엘비(CPLB)도 이번 사업에 참여한다. CPLB가 PB 상품의 포장재를 개선하면 쿠팡은 유통 과정에서 해당 상품을 알리고 소비자의 구매를 지원한다. 제조와 유통 전반에 걸쳐 친환경 포장재 적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전에서는 포장재 감량 및 경량화, 재활용 용이성 및 재사용성, 친환경 소재 및 신기술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등급인 'A등급'을 획득한 상품을 선보인다. 식품, 뷰티 등 카테고리의 150여개 상품이 참여한다.

구매 혜택도 마련했다. 행사 기간 기획전 대상 상품을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선착순으로 제공한다. 쿠팡은 앱 내 메인 배너와 푸시 알림 등을 통해 행사를 알릴 계획이다.

/김서현 기자

아이파크몰, 고디바 디저트 3종 단독 선봬

용산점 리빙파크 매장서 판매

아이파크몰이 프리미엄 초콜릿 브랜드 고디바와 협력해 디저트 신제품을 선보인다.

아이파크몰은 용산점 리빙파크 4층에 위치한 고디바 매장에서 기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만 판매하던 '다크 초콜릿 가나슈 크레페 케이크'와 신규 디저트 '쫀득 모찌 초콜릿 파르페', '스트로베리 초콜릿 파르페' 등 디저트 3종을 단독으로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쫀득 모찌 초콜릿 파르페'는 고디바의 초콜릿 풍미와 밀도 있는 식감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코코아 파우더를 입힌 카카오 모찌를 더한 메뉴다. 다양한 토핑과 초콜릿 드링크를 조합한 것이 특징이다.

'스트로베리 초콜릿 파르페'는 딸기 토핑을 더한 고디바 소프트 아이스크림에 스트로베리 드링크를 조합한 메뉴다. 초콜릿과 딸기의 맛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구성했다.

'다크 초콜릿 가나슈 크레페 케이크'는 고디바 10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디저트로, 세 가지 종류의 크레페를 다크 초콜릿 가나슈와 크림으로 층층이 쌓아 만들었다. 기존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었으나 이번 협업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판매한다.

김윤호 아이파크몰 영업본부장(이사)은 "앞으로도 다양한 브랜드와의 협업을 통해 아이파크몰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경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CJ제일제당, K-씨푸드로 세계인 입맛 공략

英·베트남·美서 쿠킹 클래스
현지 소비자 등 600여명 참여
수산물 활용 맞춤형 메뉴 선봬



지난달 영국 런던에서 진행된 퀴진케이 K-씨푸드 쿠킹 클래스에서 참가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CJ제일제당의 한식 인재 발굴·육성 프로젝트 '퀴진케이(Cuisine. K)'가 한국수산회와 함께 K-씨푸드의 글로벌 소비층 확대에 나섰다.

CJ제일제당은 영국·베트남·미국 3개국에서 진행한 'K-씨푸드 쿠킹 클래스'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한국수산회와 뜻을 모아 추진한 이번 프로그램은 김, 굴, 전복, 명란 등 한국 대표 수산물의 우수성과 활용 가치를 세계에 알리고, 현지 식문화와 어우러지는 K-씨푸드의 확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지 일반 소비자와 셰프 지망생 등 약 600명이 참여해 한국 바다에서 온 식재료의 다채로운 매력을 직접 경험했다.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8일 영국 런던을 시작으로 같은 달 22일 베트남 하노이, 이달 6일 미국 시애틀에서 차례로 진행됐다. 퀴진케이는 각국 현지 교육기관과 협업해 요리학교 재학생과 일반 소비자 대상 클래스를 각각 운영했다. 런던에서는 르꼬르동 블루, 하노이에서는 탕롱대학교, 시애틀에서는 사우스 시애틀 칼리지(SSC)와 손잡았다.

각 나라에서 강레오, 이찬양, 이연주 등 업계에서 주목받는 유명 셰프들이 쿠킹 클래스를 이끌었다. 임정동, 김지연, 윤상희 셰프 등 퀴진케이 알럼나이(Alumni) 소속 신예 셰프들도 현장에 함께하며 요리 시연과 참가자 실습을 지원했다.

메뉴는 각 나라 소비자들의 미식 취향을 고려해 구성됐다. 런던에서는 강레오 셰프가 광어를 세비체로, 김을 바삭한 카나페로 재해석하는 등 현지인들에게 한층 익숙한 방식으로 K-씨푸드를 소개했다. 하노이에서는 이찬양 셰프가 새우 김말이 튀김과 김소스를 곁들인 구운 전복 등을 선보이며 식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창의적으로 표현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제철 먹거리부터 생필품까지 알뜰 장보기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할인전
멤버십 특가·행사카드 할인 제공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오는 25일까지 '우리동네 슈퍼맛켓'을 테마로 제철 신선식품과 일상 장보기 상품을 할인 판매한다고 19일 밝혔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이번 행사에서 제철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멤버십 전용 혜택을 강화했다. 일자별 특가와 요리 테마별 카드 할인 등 다양한 장보기 혜택과 소비자 참여 이벤트도 마련했다.

19일부터 21일까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첫 출하 딸기(500g)를 50% 할인 판매한다. '산해진미' 테마에서는 닭고기와 조개 전 품목을 멤버십 회원에게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23일에는 '정말 특별한 딱! 하루데이'를 열고 사과와 샤인머스캣, 채소, 육류 등을 특가로 선보인다. 24일 '화요일 단하루 골라딜'에서는 호빵 전 품목을 대상으로 행사카드 결제 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오늘의 슈퍼맛5' 행사도 운영한다. 부대찌개, 어묵탕, 수육, 만두전골, 크림파스타 등 다섯 가지 요리 테마에 맞춰 식재료와 가공식품을 구성했다. 해당 행사 상품을 5대 행사카드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365 맛있는 가격'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주 찾는 장보기 상품을 연중 동일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번에는 구운 땅콩(500g)과 삼육플러스 두유(950mL)를 새로 추가했다.

멤버십 앱에서는 'e-스탬프' 이벤트를 진행한다. 회원은 구매 실적에 따라 e-스탬프를 적립할 수 있으며, 행사 기간에 9개를 모으면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카카오톡 채널을 새로 추가한 소비자에게는 웰컴 쿠폰팩을 제공한다.

/김서현 기자

점포 63개 줄였는데 매출 11% '쑥'… 비결은 '리테일 테크'

CJ올리브영 기자 간담회

고객과 가까운 매장 물류거점으로
매장 계산대·온라인 주문 연결
'글로벌몰' 고도화로 외국인 공략

브랜드 체험·개인화 쇼핑 통해
차세대 옴니채널 혁신 이어가



19일 서울 성수동에서 열린 올리브영 테크콘퍼런스에서 이진희 플랫폼사업총괄이 키노트 연사로 발표를 진행하는 모습.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오프라인 매장 수를 줄이면서도 두 자릿수 외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출점 경쟁이 아닌 '리테일 테크'를 통한 온·오프라인 채널의 완벽한 통합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는 중이다.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충성 고객을 확보하고 배송시간은 단축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다.

CJ올리브영의 올해 3분기 기준 국내 오프라인 점포 수는 1331개로 전년 동기 1394개보다 63개 줄었다. 점포 축소에도 3분기 매출은 1조729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 특히 오프라인 매출이 11% 증가하는 동안 온라인 매출도 10% 동반 성장해 효율적인 점포 운영 능력과 채널 연동 경쟁력을 입증했다. 국내 올리브 멤버스 18000만 명 기록, 월간 활성 이용자 수 1000만 명 돌파 역시 오프라인 거점과 모바일 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성과다.

CJ올리브영은 19일 서울 성수동에서 리테일 테크 전략을 주제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기술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공개했다. 이날 기조연설자로 나선 CJ올리브영 이진희 플랫폼사업총괄은 올리브영을 '통합 상거래 플랫폼'으로 재정의했다.

이 총괄은 "도시 외곽의 광역 물류센터 대신 고객과 가장 가까운 매장을 물류 거점으로 전환해 배송 거리를 도시에서 동네 단위로 좁힌 것이 '오늘드림'의 출발점"이라며 "매장 계산대와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연결하고 전국 매장 및 도심형 물류센터의 재고 여력을 알고리즘으로 계산해 최적의 거점을 배정하면서 당일 배송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이 총괄은 데이터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연간 2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방한 외국인이 국내 매장에서 쌓은 쇼핑 경험을 귀국 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온라인 '글로벌몰'을 계속 고도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5월 미국 현지에서 문을 연 매장들에 대해서도 현장 재고와 온라인몰을 연동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 총괄은 "나아가 온오프라인 구매 내역, 고객 후기, 피부 진단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객이 단어를 입력하고 검색하는 시대를 끝내고 대화만으로 최적의 상품을 찾을 수 있는 쇼핑 여정을 완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리브영만의 혁신 기술 내재화과 구체적인 사례도 공유했다. 올리브영은 기능별 시스템 분리, 고객 관점의 실시간 관제 등을 구현하고 있다. 실질적인 접속량과 주문이 폭증하는 정기 행사인 '올영세일' 기간에도 서비스가 유지되는 비결이다.

CJ올리브영 김환 테크플랫폼센터장은 "과거에는 수많은 주문 시스템이 얽혀 있어 한 곳의 장애가 상품 검색, 결제 등 전체로 번지곤 했다"며 "이 구조를 기능별로 쪼개고 다중 클라우드로 분산 처리해 수십만 명의 동시 접속자를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시스템 정상 작동과 함께, 고객이 쇼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했다. 김 센터장은 "개발자들이 서버 오류 지표만 보는 것이 아니라 30초, 1분 단위로 고객 결제와 상품 노출 전환율이 매끄럽게 이어지는지를 추적한다"고 말했다.

고객 불편 또한 기술적으로 개선한다. 대표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다시 담는 번거로움 없이 배송 방식을 자유롭게 설정하는 기능을 소개했다. CJ올리브영 이승효 프로덕트센터장은 "최근 출시한 '장바구니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일반 배송, 오늘드림, 매장 픽업으로 각각 구분됐던 장바구니를 하나로 합쳤다"고 말했다.

이어 이 센터장은 "기존 매장 전용이었던 피부 진단 서비스 '스킨스캔'의 경우에도, 집에서 피부 진단, 맞춤형 상품 추천, 해당 제품 재고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확장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CJ올리브영은 K뷰티 쇼핑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K뷰티뿐 아니라 해당 공간 자체를 함께 즐기는 '리테일테인먼트' 매장 ,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피지털' 서비스, 지역 상권 특색을 살린 '하이퍼로컬'을 3대 전략으로 꼽는다. 고객이 매장에서 브랜드를 직접 경험하고 온라인에서 개인화된 쇼핑을 계속하는 것이 올리브영 옴니채널 성장동력이다.

올리브영 관계자는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차세대 옴니채널 혁신을 이어가면서 국내외를 막론하고 가장 신뢰받는 K뷰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셀트리온 '램시마·허쥬마', 표 점유율 1위

램시마, 싱가포르 95%·홍콩 83%
허쥬마, 홍콩 67%·태국 59% 등 선두
각국 시장 특성 반영 현지 직판 성과

셀트리온이 대표적 파머징(Pharmerging) 마켓인 아시아 지역에서 자가면역질환 및 항암 분야 주요 제품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

19일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2026년 2분기 기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램시마' 제품군(IV·SC)은 싱가포르 95%, 홍콩 83%, 말레이시아 75%의 압도적인 점유율로 처방 1위를 지속하고 있다.

항암 분야에서도 주요 제품들의 성과가 이어졌다. 유방암 및 위암 치료제 '허쥬마'는 홍콩 67%, 태국 59%, 말레이시아 52%의 점유율로 선두를 유지했다. 특히 태국에서는 전 분기 대비 17%p 상승한 59%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경쟁 제품과의 격차를 더욱 벌렸다.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 역시 싱가포르 92%, 태국 78%, 홍콩 41%의 점유율로 각 시장에서 처방 우위를 강화했다.

전이성 직결장암 및 유방암 치료제 '베그젤마'는 말레이시아에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4분기 현지 베바시주맙 시장에서 점유율 4위에 그쳤던 베그젤마는 올해 1분기 점유율 1위로 올라선 데 이어, 2분기에도 2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선두 자리를 유지했다.

이 같은 성과는 각국의 시장 특성을 반영한 현지 직판 전략이 뒷받침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입찰 중심의 아시아 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및 안정적인 공급 역량을 앞세워 수주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의료기관의 요구사항에도 신속히 대응하며 신뢰를 쌓아왔다.

후속 제품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이다. 이달 말 홍콩에서 '베그젤마'가 출시될 예정이며, 12월에는 태국에서 '스토보클로'를 선보일 계획이다. 내년 2월에는 싱가포르에서 안과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를, 태국에서는 옴리클로를 신규 출시할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램시마를 비롯한 주요 제품군이 아시아에서 압도적인 점유율 성과를 지속하며 시장 입지를 견고하게 이어가고 있다"며 "현지 법인의 직판 역량과 셀트리온 브랜드 가치를 활용해 고수익 후속 제품군의 조기 시장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아시아 지역 내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현지 사업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대웅제약, '月 1회 투여' 비만약 임상 돌입

TION-L002 임상 1상 시험계획 승인

대웅제약이 '투약 편의성'으로 글로벌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다. 연간 주사 횟수를 기존 52회에서 12회로 대폭 줄인 월 1회 장기지속형 비만약이 본격적인 임상 1상 궤도에 오르면서다.

대웅제약은 티온랩테라퓨틱스와 공동 개발 중인 월 1회 장기지속형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TION-L002'의 국내 임상 1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TION-L002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 계열의 대표 성분인 세마글루타이드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장기지속형 주사제다. 기존 주 1회 투여 제형의 투약 주기를 월 1회로 늘려 만성질환인 비만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투약 부담을 줄이고 치료 지속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이 목표다.



'티온랩테라퓨틱스X대웅제약'. /대웅제약

양사는 이번 임상 1상에서 TION-L002의 안전성과 약동학적(PK) 특성을 평가하고 기존 대조약과의 비교를 통해 장기지속형 제형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확보한 임상 데이터를 앞세워 글로벌 파트너사를 발굴하고 해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기술적 핵심은 양사가 보유한 독자 약물 전달시스템(DDS) 플랫폼의 시너지다.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투여 직후 약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구토·메스꺼움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초기 과다 방출'을 제어하는 것이 성패를 가른다. /이청하 기자

진양곤 HLB그룹 의장, 계열사 대표직 내려놓는다

임원 승진자 22명 중 절반이 40대
미래전략부분·AX혁신팀 신설도

HLB그룹이 승진 임원의 절반을 40대로 채우는 파격적인 세대교체와 함께 그룹 컨트롤타워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인공지능 경영으로는 미래 성장동력까지 확보한다.

특히 진양곤 HLB그룹 의장은 HLB이노베이션 대표직을 내려놓고 그룹 전체의 중장기 성장전략 설계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젊은 전문경영인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를 본격화한다.

HLB그룹은 차세대 리더들을 주요 경영진으로 전진 배치하는 내용의 조직개편 및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미래전략부문과 AX혁신팀도 신설한다.

이번 인사의 핵심은 젊은 세대를 통한 실행력 강화다. 전체 임원 승진자 22명 중 절반인 11명이 40대로 구성되면서 40대~50대 초반의 인재들이 그룹 중추 조직과 주요 계열사 경영진을 꿰찼다.

여성 임원 약진도 눈에 띈다. 정희영 커뮤니케이션팀 상무보, 엄현아 이그제큐티브서포트팀 이사, 신미리내 HLB제약 이사 등 여성 인재 3명이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 진용도 새롭게 짰다. 김범수 HLB이노베이션 사장과 이원직 HLB펩 사장이 각각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두 내정자는 오는 2027년 3월 정기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공식 선임된다. 이에 따라 향후 HLB이노베이션은 김범수·브라이언 김(Bryan Kim), HLB펩은 이원직·김재일 각자대표 체제로 전환된다.

진양곤 HLB그룹 의장의 행보도 그룹 성장을 이끈다. 진 의장은 실적 개선으로 경영 역량을 입증한 김범수 내정자에게 HLB이노베이션 경영을 일임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난다. 앞으로는 그룹 이사회 의장 역할에 전념하며 신성장동력 발굴과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 등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성수동 달리고 자극받은 피부 병풀로 진정"

애경산업 '원씽', 오는 21일 성수서
스킨케어·휴식 결합 웰니스 체험

성수동 골목을 달리는 러닝 열풍 속에 운동 후 달아오른 몸과 피부를 한 번에 식혀주는 공간이 문을 연다.

애경산업의 스킨케어 브랜드 원씽은 오는 21일 서울 성수에 위치한 413 프로젝트 성수에서 '엘르 소사이어티×원씽 리커버리 카페'를 공개한다고 19일 밝혔다. K뷰티 경험을 화장품 성분 중심의 스킨케어에서 휴식을 결합한 웰니스로 넓힌다.

우선 21일 오전에는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4시간 동안 원데이 클래스가 열린다. 러닝 크루 '흥둥이'의 윤쌤·용쌤이 리더로 나서며 참가자들은 성수동 일대 3km를 달린다. 또 스트레칭, 뷰티, 반려식물 만들기, 브런치 등을 아우르는 시간도 이어진다.

이와 함께 원씽은 브랜드 대표 제품인 '병풀 추출물 토너'와 '병풀 수딩 인텐시브 밤 크림'을 내놓는다. 야외 러닝으로 자극받은 피부를 곧바로 다독이는 K뷰티를 체험하도록 하고 성분 중심 스킨케어 효능을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구상이다.

원데이 클래스가 끝난 뒤에도 성수동을 찾는 일반 방문객들을 위한 행사는 계속 운영된다. 오는 12월 14일까지 413 프로젝트 성수 내부에 제품을 전시한다. /이청하 기자

제4회 2026 GLOBAL ACX AWARDS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 전환 확산을 이끄는 도약의 장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이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대한민국 SW·AI 산업의 혁신과 AX(AI 전환) 확산에 기여한 우수 제품·서비스 및 활용사례를 발굴하고, 산업 발전에 헌신해 온 기업과 관계자 여러분의 공로를 격려하기 위해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SW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방향 공유와 함께 국산 AX 혁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자리에 귀빈 여러분을 정중히 모시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회장 이 우 용

01. 행사 개요

일 시	**2026년 11월 25일(수) 13:30 ~ 16:00** (본행사 14:00 ~ 16:00)
장 소	**메타빌드빌딩 AI Space Center 대회의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64, B1F)
주최 / 주관	**주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주관 :** (사)한국SW·AX총연합회, 전자신문사, 메트로경제
후 원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국방인공지능융합협회, 인공지능SW엔지니어링진흥협회, 정보시스템감리협회, 한국AI융합기술인협회, 한국ICT융합협회,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PMO사회적협동조합, 한국PMO협회, 한국SW저작권협회, 한국AI데이터산업협회, 한국상용인공지능SW협회, 한국인공지능SW산업협회, 한국정보산업연합회, 한국정보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제로트러스트보안협회, 한국중소벤처디지털혁신협회, 한국핀테크협회 외
시상 부문	특별공로상 / 인재상 / AI 활용우수사례상 / 제품·서비스상

02. 세부 프로그램

시 간	소요	주요 내용	비고 / 진행
13:30 ~ 14:00	30'	등록 및 VIP 사전 환담	VIP 대기실
14:00 ~ 14:05	5'	개회선언, 국민의례 및 주요 내빈 소개	사회자
14:05 ~ 14:10	5'	환영사 및 개회사	(사)한국SW·AX총연합회장
14:10 ~ 14:25	15'	축사 및 격려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의원 주관언론사
14:25 ~ 14:45	20'	**정책기조연설 :** SW시장 활성화를 위한 2026년도 정책 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45 ~ 15:00	15'	국산 AX 혁신 제품·서비스 성과 및 도입 성공사례 발표	대표 수상기업 1개사
15:00 ~ 15:05	5'	심사경과 보고 및 최종 수상자 발표	심사위원장
15:05 ~ 15:40	35'	**제4회 2026 글로벌 ACX 초월대상 본 시상**	부문별 유공자 및 우수기업
15:40 ~ 15:55	15'	전체 수상자 및 주요 내빈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15:55 ~ 16:00	5'	폐회선언 및 장내 정리	사회자

*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스캔

[참가 신청 및 참석 회신 안내]

- 온라인 사전등록 URL : https://www.kswict.or.kr/awards-ceremony-2026
- 원활한 행사진행 및 지정 좌석 배치를 위해 **사전에 참석 여부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장 공간이 협소하오니 **축하 화환은 정중히 사양**하며, 마음만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한국SW·AX총연합회 사무국 (문의: 02-858-8510 / 사무총장 박환수)

호암 39주기 맞은 범삼성가… 삼성·CJ·한솔 선영 참배

故이병철 회장, 1938년 삼성상회 창업
전자·반도체 분야로 사업 기반 넓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19일 경기 용인시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에서 열린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9주기 추도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호암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의 39주기를 맞아 삼성과 CJ, 한솔 등 범삼성가가 경기 용인 선영을 찾아 고인을 추모한다. 과거 공동으로 진행했던 추도식은 올해도 그룹별로 시간을 나눠 치러질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리움미술관 명예관장 등 삼성 오너 일가는 이날 용인 호암미술관 인근 선영을 방문한다. 삼성 사장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CJ그룹에서는 고인의 장손인 이재현 회장이 아들 이선호 CJ주식회사 미래기획실장, 딸 이경후 CJ ENM 브랜드전략실장 등 가족과 함께 오전 중 참배할 예정이다. CJ 일가는 별도로 서울 중구 고택에서 제사도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고인의 외손자인 조동길 한솔그룹 회장이 선영을 찾는다. 범삼성가는 과거 합동 추도식을 열었으나 2012년 이맹희 전 CJ그룹 회장과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 간 상속 분쟁 이후 그룹별로 참배 시간을 구분해 왔다.

이 창업회장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하며 사업을 시작했다. 청과물과 건어물 무역으로 출발한 삼성은 1953년 제일제당과 1954년 제일모직 설립을 거쳐 식품·섬유 등 제조업으로 사업 기반을 넓혔다. 제일제당은 이후 CJ그룹의 모태가 됐다.

이후 사업 영역을 전자·반도체 분야로 확대했다. 이 창업회장은 1969년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전자산업에 진출한 데 이어 1983년 반도체 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했다. 이를 계기로 삼성전자는 메모리반도체 사업의 성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이후 글로벌 반도체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 창업회장이 1987년 11월 19일 별세한 이후에도 삼성의 사업 확장은 이어졌다. 삼성과 CJ, 신세계, 한솔 등 범삼성 계열 그룹은 이후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해 각 사업 분야에서 성장해 왔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기아 노사, 이웃 위해 레이·기부금 지원

기아 국내사업본부 노사가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복지 차량과 장학금을 지원하며 교통·교육 사각지대 이웃 돕기에 나섰다. (왼쪽부터)윤찬영 판매지회장,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최유호 관장, 기아 국내사업본부장 정원정 부사장,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조남권 사무총장, 기아 국내오너십·판매지원사업부장 최진기 전무, 천용현 정비지회장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기아



한미사이언스, 2년 연속 나눔국민대상 수상

한미사이언스가 제약업계 최장수 기록인 46년간의 헌혈 캠페인과 소아암 환아 지원 등 임직원 참여형 사회공헌 성과를 인정받아 그룹 차원의 2년 연속 정부포상 영예를 안았다. 지난 5일 서울 KBS 아트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나눔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한미사이언스 심병화 부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받으며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미그룹

정은보, WFE 아태지역 이사 재선임

〈한국거래소 이사장〉

글로벌 자본시장 현안 논의 지속

한국거래소는 정은보 이사장이 제65차 세계거래소연맹(WFE) 연차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 이사로 재선임됐다고 19일 밝혔다.

WFE는 1961년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74개의 세계 각국 정규거래소를 정회원으로 두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1979년 9월, 21번째 정회원으로 WFE에 가입했다.

이번 WFE 연차총회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됐다.

정 이사장은 이사 연임으로 WFE 이사회에서 글로벌 자본시장 현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이사회는 WFE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이며, 세계 주요 거래소 대표들로 구성됐다.

정은보 이사장은 "WFE 이사로 다시 선임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요 거래소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글로벌 자본시장의 발전에 기여하고,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거래소 소속이 WFE 이사직을 수행한 것은 1994년이 처음으로, 정 이사장까지 총 11회다. /신하은 기자 godhe@

파마리서치 리쥬란, 세계일류상품 선정

50여개국 시장 공략 속도

국내 스킨부스터 시장을 개척한 파마리서치의 대표 품목 '리쥬란'이 세계 시장 점유율 톱5 수준의 경쟁력을 입증하며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

재생의학 전문기업 파마리서치는 국내 최초 폴리뉴클레오티드(PN) 기반 스킨부스터 리쥬란이 '2026 현재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하는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은 국내 우수 제품을 발굴하고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세계일류상품 선정의 경우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이면서 점유율 5% 이상을 기록한 품목에만 부여된다.

리쥬란은 안면부 주름 개선에 쓰이는 의료기기다. 2014년 출시 이후 피부 본연의 회복력을 높이는 시술로 각광받으며 아시아, 유럽, 중동 등 50여 개 이상 국가로 입지를 넓혀왔다. 특히 유럽 진출 원년인 올해 프랑스에서 당초 목표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거뒀고 멕시코·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신규 국가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3분기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48%까지 커졌다. /이청하 기자 mlee236@



협약식에 참석한 이승열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왼쪽 다섯 번째), 이재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장(왼쪽 네 번째), 금기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의료인 금융 패키지 선보인다

연세대학교 의대와 업무협약

하나금융그룹이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손잡고 의료인 특화 금융서비스를 확대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8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동문 맞춤형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세대 의과대학 총동문회와 연세의료원의 의료 네트워크에 하나금융의 종합금융 역량을 결합해 동문들의 생애주기와 경력에 따른 금융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승열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이재범 연세대 의과대학 총동문회장, 금기창 연세의료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 등이 참석했다.

하나금융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증권, 하나캐피탈, 하나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연세대 의과대학 동문 전용 통합 금융 패키지'를 선보일 계획이다.

우선 하나카드는 오는 12월 동문 전용 신용카드를 출시한다. 병·의원 개원의의 수요를 반영한 캐시백 혜택과 해외 학회·연구 활동이 잦은 의료인을 위한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서울시교육청

느린학습자 지원책 모색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 혹은 그와 유사한 특성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양육 경험을 나누고 필요한 정책을 직접 제안하는 공론의 장이 열린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청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느린학습자 학부모 특강 및 원탁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느린학습자 학부모의 능동적 양육을 이끌어내고,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 마련했다.

/김수정 기자 kcrystal@



소진공, 안전한 상품 유통 기여 장관 표창

소진공은 '위해상품 사전 유통차단 체계 구축'으로 제품안전관리 유공 산업통상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왼쪽부터)소진공 유통지원팀 임동혁 과장, 장인선 성장지원실장, 인태연 이사장, 김종순 소상공인본부장, 임상훈 유통지원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팜젠사이언스, 발안천 환경정화 봉사

팜젠사이언스 임직원이 핵심 생산 거점인 향남캠퍼스 인근 하천의 수질 보전과 지역사회 상생을 실천했다. 팜젠사이언스 향남캠퍼스 직원들이 발안천 플로깅 봉사 후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팜젠사이언스

인 사 ◆㈜LG ◇전무 승진 △전자팀장 박충현 ◇이동 △재경팀 금융·IR담당(상무) 김규동 △전략팀 사업개발담당(상무) 김용석 △화학팀장(상무) 이영석 △통신서비스팀장(상무) 장민용

◆**LG경영개발원** ◇원장 선임(대표이사 내정) △LG경영개발원장 겸 정도경영TFT장 하범종 ◇부사장 승진 △LG정책협력개발원장 하태석 ◇전무 승진 △LG경영개발원 CFO 김성기 ◇수석연구위원(상무) 선임 △LG AI연구원 EXAONE Lab장 김이른 △LG AI연구원 Physical Intelligence Lab 산하 강병준 ◇이동 △LG인화원장(전무) 김기수 △LG경영개발원 정도경영TFT 진단1담당(상무) 이재선 △LG AI연구원 People Unit장 겸 LG경영개발원 CHO(상무) 남주현

◆**LG이노텍** ◇부사장 △조지태 ◇전무 △이동훈 ◇상무 △강영준△남상혁△남형기△박민하△박재만△손득훈△이지명

◆ **LG스포츠** ◇상무 선임 △경영지원담당 옥정우

◆ **D&O** ◇이동 △F&B사업부장(상무) 이호영

◆**HSAD** ◇상무 선임 △Integrated eXperience센터장 윤정민

◆**LG디스플레이** ◇ 전무 승진 △권경준 △유준석 △전종석 △이후각 △김기영 △이정희 ◇ 상무 신규 선임 △김희천 △박정호 △이영록 △안성환 △양동규 △오태영 △홍부선 △오성진 △정성원 △성기훈 △이창용

◆**LG유플러스** ◇ 전무 승진 △노성주 현 NW부문 NW인프라그룹장 △안형균 현 엔터프라이즈부문 엔터프라이즈 AI사업그룹장 ◇상무 신규 선임 △권기덕 현 AX엔지니어링 Lab장 △문태희 현 중부인프라담당 △손지호 현 AIDC엔지니어링 TF 리드 △오경훈 현 HSAD 정도경영담당 △유호성 현 홈사업담당 △임혜경 현 요금상품담당 △조승연 현 노경·지원담당 △차재봉 현 준법지원담당 △황승연 현 전략·AX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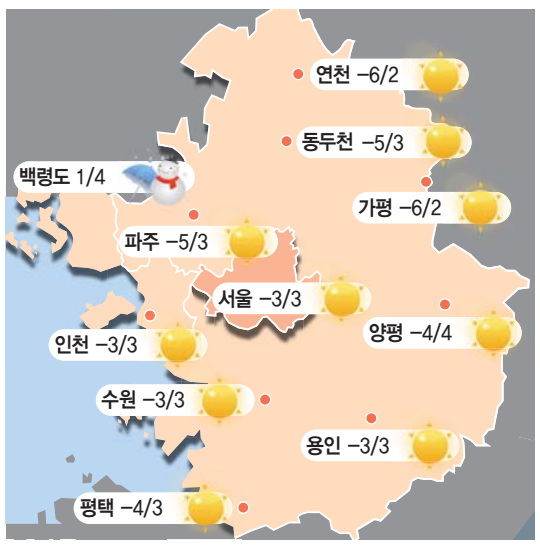
부 음 ▲권순복 별세, 최윤성(GS E&R 사업협력팀장)씨 모친상=19일 오전 2시40분, 안양샘병원장례식장 2호실, 발인=21일 오전 9시30분, 장지 수원연화장. 031-467-9700

오늘의 날씨 해뜸 / 07:17 | 해짐 / 17:18

11월 20일(金) 음력 : 10월 12일

수도권 날씨 -3 ~ 3℃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8평 옥탑방에 모인, 짠하지만 유쾌한 인생들!

오늘도 버틴다!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뮤직 드라마

망원동 브라더스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번엔 진짜 잘될 거야!

예매하기

티격태격하다가, 어느새 식구가 된다!

2026.10.09 ~ 2027.01.31 | 대학로 루미나아트홀

보이스피싱의 진화



이승환의 어드바이스

최근 몇 년 새 가장 흔하게 벌어지는 사기 가운데 하나는 보이스피싱이다. 전환 한 통으로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키고 순식간에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다.

어느 날 70대의 노신사 김모 씨가 시중은행 창구를 찾았다. 잔뜩 긴장한 표정의 김 씨는 통장에 든 전 재산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창구 직원은 깜짝 놀랐지만 차분히 용도를 물었다. 김 씨는 횡설수설하며 불안한 모습이었다. 거액의 예금을 갑자기 찾는 데다 노신사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낀 은행원은 보이스피싱을 직감했다.

은행원이 조심스럽게 다시 한 번 묻자 김 씨는 마지못해 "검찰청에서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며칠 전 집 전화로 검찰 수사관을 자칭하는 사람이 연락했다는 것. 상대방은 "김○○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 지금 당장 돈을 인출해 안전계좌로 옮기지 않으면 모두 몰수 당한다"고 다그쳤다. 깜짝 놀란 김 씨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묻자, 그는 김 씨의 모든 예금을 찾아서 지정된 계좌로 보내라고 지시했다. 김 씨가 망설이자 전화 속 남성은 목소리를 맞춰 이렇게 말했다. "김 선생님, 지금 저희가 도와 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행하지 않으면 김 선생님도 공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라고 했다. 김 씨는 두려운 마음에 결국 지시에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김 씨는 전화를 끊자마자 은행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사기범은 "은행 직원에게는 말하지 말라, 이 건은 극비 수사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김 씨는 주변 누구의 도움도 구하지 못하고 혼자 속수무책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은행원의 기지 덕분에 김 씨의 돈은 간발의 차로 지켰다. 은행원은 김 씨를 진정시키며 시간을 끄는 동시에 몰래 경찰에 신고했다. 잠시 후 경찰관들이 은행에 도착했고, 통화 내용을 들은 뒤 사기가 분명함을 확인했다. 경찰관은 "검찰에서 절대 이런 방식으로 돈을 직접 요구하지 않는다"며 김 씨를 안심시켰다. 비로소 자신이 속을 뻔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씨는 평생 사기를 당해 본 적 없고, 본인은 그런 일과 거리가 멀다고 믿었다. 그러나 '검찰'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 믿음은 여지없이 흔들리고 말았다. 국가 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자 김 씨는 순식간에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평소 법을 잘 지켜온 선량한 시민일수록 이런 상황에서는 조급해지기 마련이다. 전화 속 사람이 비록 한 번도 만나 보지 못한 낯선 사람이었지만 스스로 "검찰청 A과장"이라고 밝힌 순간 김 씨의 마음 한켠에는 "설마 검찰이 거짓말을 하겠어?"라는 막연한 신뢰가 생겼다. 사기범은 그 심리를 파고들었다.

이 사례는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피해자의 심리를 어떻게 조종하는지를 잘 보여 준다. 첫째 권위 남용 효과다. 사기범은 '검찰청'이란 권위를 내세워 피해자의 복종 심리를 끌어냈다. 둘째, 공포 유발과 긴급성이다. '범죄 연루', '몰수', '체포' 등 자극적인 단어를 사용해 극도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지금 당장' 행동하라고 몰아붙였다. 심리적 압박으로 판단력을 흐리게 한 것이다.

"설마 내가 속겠어?"하는 생각은 누구나 하지만 막상 이런 상황에 놓이면 속기 쉽다. 사기범은 피해자의 '진실편향'도 교묘히 이용한다. 진실편향이란 특별한 의심거리가 없으면 상대방을 믿는 인간의 보편적 경향이다. 김 씨도 전화를 건 사람이 조목조목 설명을 늘어놓자 그 말을 사실로 받아들인 셈이다. 결국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사기의 덫이 덥석 채워진다. 수사기관이나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직접 전화를 걸어 자금 이체를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공식 번호로 다시 연락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최선이다. /'사기 프로파일링' 저자

시험에 든 건 시험만이 아니다



기자 수첩

성 채 리 〈건설부동산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교회에 다닌 적은 없지만 명절마다 제사 대신 예배를 드렸다. 독실한 할아버지, 할머니 덕분이다. 다른 건 몰라도 주기도문은 외웠다. 어릴 때 '시험에 들다'라는 말의 뜻이 궁금해 찾아보기도 했다.

주기도문의 구절 속 시험은 문제를 푸는 시험이 아니다. 믿음과 양심이 흔들리는 순간이다. 초소형 카메라로 세무사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인공지능(AI)으로 답을 구했다는 수석 합격자 '세무냥이'의 자백 이후 두 시험이 겹쳐졌다.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시험은 가장 어려운 시험에 들었다.

시험만 시험에 든 건 아니다. 작아진 카메라는 시험장 밖 세상도 누비고 있다. 지난 12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IP카메라 1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전반적으로 보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이나 사무실 영상을 원격으로 확인하는 기기인 만큼, 보안 허점은 사생활 침해로 쉽게 이어진다.

지난해 여수시에서는 한 남성이 헤어진 동거인의 집에 있던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연결해 집 안을 훔쳐본 일도 있었다. 그가 본 장면은 이후 피해자를 공격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세무냥이' 사건은 모든 시험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며칠 앞두고 터진 일이라 더 민감한 문제였다. 그런데 사생활 노출에는 점점 무뎌지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뉴스가 들리니 '또 그런 일이 있나보다' 하고 넘기기 쉽다.

의심은 시험장 밖으로도 향해야 한다. AI 커닝 사건은 매일 쓰는 기기가 과연 안전한지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사생활을 관리하는 플랫폼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초소형 카메라와 AI가 범죄 수단으로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최근 한 수능 일타 강사는 AI 커닝 대책으로 항공 보안에 준하는 입실 검사와 전파 차단 등을 언급했다. SF영화를 떠올리는 '세무냥이'의 수법을 보면 당장 지나쳐 보이는 방안도 시도할 법하다. 끝없는 의심이 일상을 더 물들이기 전에 지나치다 싶을 만큼 허점을 찾아야 한다.

시끌시끌했던 2027 수능은 끝이 났다. 하지만 흔들리는 믿음과 양심은 여전하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고 다만 악에서 구하는 건 기도만으로 될 일은 아니다. /cr5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0일 (음 10월 12일) 포춘토리(www.fortunetory.com)

쥐 **48년생** 약간의 손해를 볼 우려가 있는 하루입니다. **60년생** 대인관계가 매우 좋아집니다. **72년생** 남쪽 상대와의 의견차이를 인정하세요. **84년생** 직장에서 작은 트러블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소 **49년생** 고집을 피우면 주변에 사람들이 힘들어집니다. **61년생** 많은 것을 기대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73년생**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됩니다. **85년생** 위험한 상황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랑이 **50년생** 자기의 자신을 아는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62년생** 구설수에 오를 수 있습니다. **74년생** 앞에 너무나도 큰 산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86년생** 기분 전환이 필요합니다.

토끼 **51년생** 가던 방향을 고집해야 합니다. **63년생** 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합니다. **75년생** 어려울수록 중심을 확실하게 잡고 집중하세요. **87년생** 마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기겠습니다.

용 **52년생** 현실적이면서 낭만적인 삶을 사세요. **64년생** 너무 무게 잡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76년생**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88년생** 모험심이 생깁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뱀 **53년생**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게 됩니다. **65년생** 신선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77년생** 동쪽에서 귀인이 찾아와 도움을 줍니다. **89년생** 처음부터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마세요.

말 **54년생** 바라는 직종이 눈에 띄질 않습니다. **66년생** 역경 없이 보람을 만나기가 어려운 운세입니다. **78년생**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 취직하게 됩니다. **90년생** 원대한 꿈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양 **55년생** 모든 것은 항상 시와 때가 있는 법입니다. **67년생** 말을 생각없이 함부로 내뱉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79년생**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91년생** 남 탓을 하지 마세요.

원숭이 **56년생** 바라는 것은 매우 잘 풀려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68년생** 역경을 물리치기는 하나 결실은 만족치 못합니다. **80년생** 아끼지 말고 힘껏 도전하세요. **92년생** 편안한 주말을 보내게 됩니다.

닭 **57년생** 원통할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69년생** 사업이 차차 진전이 있습니다. **81년생** 곧 좋은 소식이 오게 됩니다. **93년생** 허욕이나 욕심을 버리고 직책에 충실하여야 나중에 좋을 것입니다.

개 **58년생** 저녁에 잡는 약속은 신중하게 결정하는 게 좋겠습니다. **70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82년생** 시비를 가까이 하지 마세요. **94년생**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손해를 당할 것입니다

돼지 **59년생** 문어발식 확장은 결국 공멸로 이어집니다. **71년생** 조심과 좌중을 요합니다. **83년생** 아이가 아프면 지체 말고 병원으로 달려가세요. **95년생** 투자는 불길하고 보험 등은 이득을 창출 합니다.



김상회의 四季

운동과 체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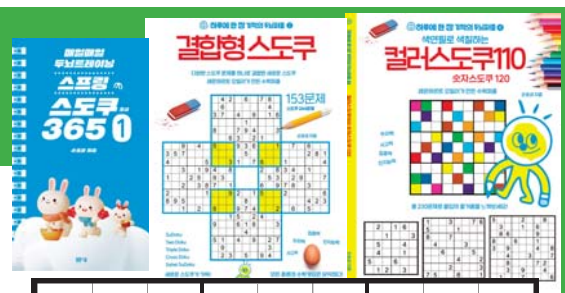
운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무더운 여름에는 조금만 걸어도 땀이 비 오듯 쏟아지고 숨이 차지만, 가을에는 선선한 바람이 불어 야외활동을 즐기기에 좋다. 울긋불긋 물든 산을 오르고, 공원에서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도 늘어난다. 여름 내내 미뤄두었던 운동을 시작하기에도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즐겁게 시작한 운동에도 생각지 못한 위험이 숨어있다. 산에 올랐다가 발목을 다치고, 마라톤에 참가했다가 쓰러지며, 오랜만에 운동을 시작했다가 병원 신세를 지기도 하는 것이다. 가을철 산행에서 흔하게 생기는 사고는 낙상과 실족이다. 단풍을 구경하느라 발을 헛디디거나, 젖은 낙엽과 돌에 미끄러질 수 있다. 평소 운동을 하지 않던 사람이라면 무릎과 발목에 무리가 오고, 하산할 때는 체력이 부족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마라톤이나 오래달리기도 마찬가지다. 날씨가 선선하다고 평소보다 빠르게 달리면 심폐 기능에 과부하가 걸린다. 평소 꾸준하게 운동하던 사람도 준비 없이 장거리를 달리면 근육이 쉽게 지치고 심장 부담이 커진다. 사람들은 자기 몸을 잘 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저마다 타고난 특질이 다르다. 그것이 바로 체질이다. 체질에 따라 근육이 잘 발달하는 사람도 있고, 체력이 태생적으로 약한 사람도 있다. 운동 능력과 회복 속도 역시 개인마다 차이가 난다. 운동할 때는 이런 체질을 알고는 있어야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 팔자학에서도 사람마다 타고난 기운의 구성이 다르다고 본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의 분포와 균형은 개개인의 체질을 잘 보여준다. 타고난 기운의 차이를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것도 좋다. 자신의 체질을 이해하고 무리하기 쉬운 습관을 점검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체력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을 더한다면 현명한 운동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한뼘 스도쿠365



문제출제:손호성
새로운 고난이도의 월드퍼즐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칸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2				3	7			6
4	3							8
		6		8		4		
1					3	5		
			2		9			
		8	5					7
		9		2		6		
5							3	2
7			6	1				9

1	9	3			6		7	
								3
6				8		2		
9				5		3	4	
		6				9		
	4	2		3				5
		5		1				7
3								
	6		9			5	3	8

할인도서

9	4	8	5	1	6	3	2	7
2	3	1	8	9	7	4	6	5
5	7	6	4	2	3	9	1	8
7	9	2	1	6	5	8	4	3
1	8	3	9	4	2	5	7	6
4	5	7	6	5	8	1	3	9
6	1	9	7	3	4	2	5	8

8	3	5	2	4	9	1	6	7
1	2	4	5	6	7	9	8	3
7	9	6	1	3	8	7	2	4
5	1	7	9	3	6	8	4	2
2	7	9	4	7	1	6	3	5
4	6	3	8	2	5	9	7	1
9	5	2	7	8	4	3	1	6
6	8	1	3	9	2	4	5	7
3	4	8	6	5	1	2	9	4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 행·편 집 인	이 장 규	편집국장	윤 휘 종
인 쇄 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일반 일간신문, 무료>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6039호		
일간 메트로경제 <유료, 월 2만원>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2143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AI 도입 넘어 실질적 성과로… 업무·조직 혁신이 성패 좌우

인공지능(AI)이 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으면서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업무 구조와 조직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인공지능 전환(AX)이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AI 에이전트의 확산과 산업별 적용 사례가 늘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익률(ROI) 검증과 데이터 관리, 조직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개최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는 학계와 국내 주요 AI·통신기업 전문가들이 산업현장의 AX 적용 사례와 미래 전략을 공유했다.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AI 에이전트가 개인과 기업의 업무 수행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전망했다. 개인의 AI가 주문을 요청하고 기업의 AI가 이를 처리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환경이 확산하면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제조·건설·의료·교육 등 산업별 AI 활용 사례를 소개하며 기업이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사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를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설계하는 'AI 네이티브' 기업의 성장을 전망했다.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는 AX 도입 과정에서 기업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문제를 짚었다. AI로 직원의 업무 시간이 단축되더라도 비용 절감이나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성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이 'AX시대, 주요 업종별 AI 활용법은?' 주제로 18일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렸다. 포럼에 참가한 학계와 국내 주요 AI·통신기업 전문가들이 산업현장의 AX 적용 사례와 미래 전략 방안을 공유했다.

기업경쟁력 좌우할 인공지능 전환
AI 에이전트 확산 등 적용사례 늘어
실질적 성과 창출 위해 변화 필요해

투자비·숨은비용 고려한 ROI 설계
업무 목표·처리 방식도 재설정해야
기술 발전속도 맞춰 조직혁신 요구
도입 규모보다 구체적인 성과 핵심

김 이사는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에만 6개월에서 1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초기 투자비와 숨은 비용까지 고려한 ROI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27년이 기업 간 거래(B2B) 시장에서 AI 전환의 사실상 원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신 3사는 실제 산업현장에서 거둔 AX 성과와 시행착오를 공개했다.

한영섭 LG유플러스 AIR&D랩장은 AI 코딩 도구를 활용해 기존 2390분이 걸리던 개발 작업을 480분으로 단축한 사례를 소개했다. 약 80%의 시간 절감 효과다. 또한 개발 업무를 26개 단계로 세분화해 8개 업무를 AI가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했다. 청구서 작성 등 반복 업무에도 AI 에이전트를 적용하고 있다.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는 업무 재설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KT는 태양광 발전량 예측에 AI 기반 자동 모델링을 도입해 수개월이 걸리던 모델 개발 기간을 약 3주로 단축했다. 고객센터 AI 에이전트의 개발·실험 기간도 절반 수준으로 줄였다.

박 상무는 "기존의 사람이 하던 일 방식대로 설계해서는 절대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AI 도입과 함께 업무 목표와 처리 방식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은 AI 도입 초기 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J커브' 현상을 설명했다. SK텔레콤은 기존 50시간이 소요되던 시스템 수정 작업을 AI로 자동화하는 과정에서 한때 500시간 이상을 투입했지만,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작업 시간을 1시간으로 줄였다.

현 팀장은 개별 업무의 처리 속도가 빨라져도 전체 업무 프로세스가 바뀌지 않으면 기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사람이 이해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AI 기술의 발전 속도만큼 기업의 업무 구조와 조직 문화도 변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AI를 얼마나 많이 도입했는지가 아니라 실제 산업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는지가 AX 경쟁력을 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I, 기업·국가 경쟁력 좌우 中企·소상공인까지 혁신 확산"

축사

조 경 태 국회의원



산업전반의 AX 필요성 강조
정책·입법적 지원 최선 다할 것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6선·부산 사하구을)이 "인공지능(AI) 기술의 활용은 기업 경쟁력과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과제가 됐다"며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경태 의원은 18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열린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축사에서 "인공지능은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산업과 경제, 나아가 우리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메트로경제·메트로신문이 업종별 AI 활용법과 현장 사례를 공유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각자 산업에 맞는 AX 방안을 찾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제조·금융·의료·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인공지능 전환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며 "인공지능 기술은 산업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혁신의 성과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산업별 인공지능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이번 포럼은 매우 뜻깊은 자리"라고 평가했다.

조 의원은 "국회에서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인공지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인공지능 산업에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박경수 기자 gws0325@

"AI 활용역량 강화 위해 제값 받기 운동 펼칠 것"

축사

이 우 용 한국SW·AX총연합회장



AI 경쟁력은 현장에서의 활용 역량
기업-기관 협력으로 'AI 강국' 도약
전문인력 양성, 보상체계 마련 과제

이우용 한국SW·AX총연합회장이 인공지능(AI) 시대의 산업 경쟁력은 기술 보유 수준보다 현장에서의 활용 역량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2026 뉴 테크놀로지 포럼' 축사를 통해 "AI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기업의 경영 방식과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요한 것은 AI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각 산업의 특성에 맞게 어떻게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느냐에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별 AI 활용 전략과 기업·기관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이 산업별 AI 활용 방향과 기술 혁신 가능성을 공유하고 미래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기업과 기관의 소통과 협력이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I 전문 인력 양성과 합당한 보상 체계 마련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AI 전문 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이 산업 현장에 투입됐을 때 전문성에 걸맞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느냐는 점"이라며 "ICT총연합회도 전문 인력의 정당한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값 받기 운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이 대한민국 AI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빛나 기자

"중대한 판단은 인간의 몫 AI와의 협력방안 모색해야"

환영사

이 장 규 메트로미디어 대표



AI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 신뢰 훼손
인간이 통제권 갖고 주도권 확보해야

이장규 메트로미디어 대표가 인공지능(AI) 시대에도 중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는 인간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가 인간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하는 만큼 인간이 통제권을 갖고 함께 발전할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환영사에서 생성형 AI가 세종대왕이 노트북을 던졌다고 틀린 답을 제시한 사례를 들며 AI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물었다.

AI를 악용한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서는 "사회의 공정, 신뢰 자체를 허무는 AI발 중대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사회에 던져진 불신만큼이나 AI가 가진 가공할 지적(知的) 위력도 놀랍다"며 "AI가 내놓는 결과물에 매번 휘둘리다 보면 미래의 주도권이 어느 순간 AI에게 넘어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AI와 과연 어떤 관계를 맺는 게 좋을까"라며 "안보 전문 AI가 적국을 타격하라고 제안한다면, 장군이나 대통령은 따라야 할까", "인사 담당 AI가 승진에서 나를 탈락시켰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AI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어차피 인간의 삶에 혁명적 변화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다만 "AI는 희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느끼지 않는다. 의식도 없고 성찰 능력도 없다"며 "결국 우리 인간이 통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 '나에게 맞는 AI'로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AI 시대에도 중대한 판단을 하는 주체는 올바른 자격을 갖추고 합리적 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간이어야 한다"며 "우리가 인공지능과 어떻게 협력해서 현실을 탐구할지, 미래를 열어가야 할지 고민하고, 그 답을 모색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bm@

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61

metroseoul.co.kr

metro Life

제6039호 2026년 11월 20일 금요일



AI 부정행위 파장
초소형 카메라 등
판매규제 강화
L1

CJ올리브영
점포 줄었는데
매출 11% 증가
L2



"누구나 AI 비서 쓴다… 제조·의료 등 산업 구조 바꿀 것"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기조강연

이 경 전 경희대학교 교수

AI 에이전트 활용, 개인·소상공인까지 확대
사업기회 제공 등 새로운 수익창출 수단으로

인공지능(AI)이 단순한 업무 자동화를 넘어 개인의 비서 역할을 수행하고 제조·의료·교육 등 산업 전반의 비즈니스 구조를 바꾸는 새로운 전환점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개인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AI 에이전트가 확산하면서 기업 중심의 AI 활용이 개인과 소상공인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개최된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업종별 AI 활용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강연한 이경전 경희대학교 교수는 "이제는 모든 사람이 AI 비서를 갖는 시대가 왔다"며 "AI 에이전트가 사람을 대신해 주문하고 예약하는 등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업종별 AI/로봇 활용 방안과 전망'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이 교수는 최근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직접 피자를 주문한 경험을 소개하면서 "앞으로는 손님도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주문하고, 음식점 주인도 AI 에이전트로 주문을 받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AI와 사업자의 AI가 직접 소통하는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A2A)' 시대가 본격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새로운 수익 창출 수단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제시했다. 미국의 '델파이 AI'와 국내 '크레딧 그래프' 등을 사례로 들며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학습한 AI가 고객 상담과 전문 서비스 제공을 대신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소개했다.

산업별 AI 활용도 빠르게 구체화하고 있다. 제조업에서는 공장 설계와 설비 배치, 생산 공정 최적화에 AI가 적용되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설계도면의 법규 준수 여부를 검토하거나 공사비를 자동 산정하는 기술이 등장했다.

이 교수는 LG CNS의 건축 도면 법규 검토 기술과 포스코이앤씨의 공사 견적 자동화 사례를 언급하며 AI가 산업 현장의 비용과 업무 부담을 줄이는 핵심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약 연구개발과 질환 조기 진단이 주목받고 있다. 실제 연구 과정에서 AI를 활용해 세포 구조를 분석한 결과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것보다 500~1000배 빠른 처리 속도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자별 수준과 요구에 따라 강의 콘텐츠를 자동 생성하는 AI 기반 교육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이 교수는 향후 2~3년 안에 AI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설계하는 'AI 네이티브 대학'이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이 교수는 기존 산업에 AI를 추가하는 수준을 넘어 처음부터 AI를 중심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AI 네이티브'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많은 전문가가 AI로 대체되기보다 AI를 장착하고 자신의 분신을 만들어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AI가 개인과 기업 모두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AX, 명확한 투자수익률 설정이 출발점"

강연

김 지 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

AI 도입 시 인프라 구축 비용까지 고려해야
업무·조직구조 백지화… 전면 재설계 강조

김지섭 뤼튼테크놀로지스 이사가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투자수익률(ROI)을 먼저 따지고 업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도입 자체를 성과로 볼 수 없으며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AI 전환의 허와 실'을 주제로 강연한 김 이사는 AX가 중단되는 원인으로 ▲명확한 투자수익률(ROI) 설정 ▲AI 적용 가능성 판단 ▲상향식 접근의 한계 ▲데이터 거버넌스 ▲사용자 경험(UX)을 꼽았다.

그는 "(AI 도입에 대한) 명확한 ROI 설정이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직원의 업무 시간이 줄더라도 기업의 성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기준이 없다면 투자 효과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ROI를 따졌다면 AI가 실제로 맡을 수 있는 업무인지 가려내야 한다. 그는 AI 모델 성능이 "한계를 모르고 계속 치솟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업무를 명확히 정의할 수 있는지, 결과를 빠르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업무에 필요한 경험과 판단 등 암묵지를 명문화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용자 경험도 과제로 들었다. 구성원에게 익숙한 도구와 업무 방식을 고려하지 않으면 AI 활용이 정착되기 어렵다고도 짚었다.

김 이사는 기존 업무를 조금씩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업무와 조직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것을 백지화하고 다시 설계하는 것이 AI 전환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kbm@

"AI로 개발시간 80% 단축… 업무 혁신 가속"

강연

한 영 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

AI, 단순 업무보조 아닌 사람 역할 수행
회사만의 노하우 자산화로 경쟁력 갖춰야

LG유플러스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소프트웨어 개발 시간을 약 80% 단축하고, 반복 업무를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등 실질적인 인공지능 전환(AX) 성과를 공개했다.

한영섭 LG유플러스 AI R&D랩장은 '2026 뉴테크놀로지 포럼' 강연에서 "AI가 단순한 업무 보조 도구를 넘어 실제 사람의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기업의 업무 방식과 조직 구조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영섭 R&D랩장은 LG유플러스 내부에서 진행한 AI 코딩 실험을 소개했다. 동일한 개발 업무를 AI 활용 여부에 따라 비교한 결과, 기존 2390분이 소요되던 작업 시간이 480분으로 줄어 약 80%의 생산성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



다만 AI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사람이 모든 과정을 검증해야 한다면 비용 절감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개발 업무를 기존 7단계에서 26단계로 세분화하고, 이 가운데 8개 업무를 AI가 완전히 수행할 수 있는 영역으로 분류했다. 실제 현장 적용 사례도 공개했다. LG유플러스는 서버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영 관제 에이전트를 개발했으며, 엑셀 기반 청구서 작성 업무에도 AI를 도입했다.

한 R&D랩장은 AI 확산으로 기업의 경쟁력 기준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우리 회사만 갖고 있는 노하우와 지식을 잘 정리해 둬야 한다"며 "데이터를 자산화한다면 AX 시대에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AI 성과, 업무 재설계·조직변화에 달렸다"

강연

박 기 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

사람의 방식 버리고 AI 맞춤 업무설계해야
주니어 성장기반 약화 우려… 조직개편 제언

"AI를 적용할 때 기존에 사람이 하던 방식대로 설계해서는 절대 성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업무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박기철 KT IT부문 서비스플랫폼담당 상무는 '산업현장 AI 적용사례와 변화 트렌드'란 주제의 발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제로 ▲업무 재설계 ▲난제 해결과 공용화 ▲신뢰 확보 ▲조직역량 강화 ▲실행 루프 구축을 제시했다.

업무 재설계의 예로 지자체 공기질 보고서를 들었다.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고 전문가 검수를 연결한 결과, 작성 비용은 97% 줄고 기간은 22일에서 1일로 단축됐다.



박 상무는 난제(難題)를 "단위 업무당 비용이 많이 드는 일"로 규정했다. KT는 반년 가까이 걸리던 태양광 발전량 예측 모델 개발을 인공지능(AI) 기반 모델링으로 3주 만에 마쳤다.

공용화와 관련해서는 부서마다 AI를 따로 도입하면 규모의 경제를 내기 어렵다며 "공용 기반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권했다.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KT는 업무 스킬 22종을 표준화해 공용으로 쓰고, 통합 대시보드로 에이전트의 응답 시간과 토큰 사용량을 살핀다.

다만 AI로 개발이 빨라져도 코드 리뷰와 품질 점검에는 시간이 걸리고, 주니어의 성장 기반이 약해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에 두세 명의 소규모 조직이 에이전트와 일할 수 있도록 조직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일의 설계와 조직 변화에 대해 관심을 가지면 성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김보민 기자

"100% 성능 요구 경계… AI 실효성 따져야"

강연

현 창 호 SKT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

AI 도입, 성공보다 실패사례 더 많아
성공적 활용 위해 '데이터 축적' 제시

"기업이 인공지능(AI)을 도입할 때는 완벽한 결과만을 요구하는 '100% 함정'과 실질적인 효과 측정을 무시하는 '체감의 함정'을 경계해야 합니다."

현창호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기술지원팀장은 기업이 인공지능전환(AX)의 현주소를 짚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날 '엔터프라이즈 비즈니스에서 AX의 역할과 의의'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현 팀장은 AX 실패는 예외가 아니라 기본값이라고 정의하며 "AI 도입은 성공 사례보다 실패 사례가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그 배경으로 AI 도입 이후 업무 효율이나 성과가 100% 나와야 한다고 믿는 '100% 함정'이 대표적이다. 현 팀장은 이를 곧 AX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고 봤다. 또 한가지는 AI 편의성으로 인해 업무 시간이 줄었다고 착각하는 체감의 함정이다. 현 팀장은 "AI를 사용하다 보면 실제로 업무 시간이 더 걸려도 수고로움이 덜해 일이 빨라진다고 느낀다"고 진단했다.



이러한 착각은 비생산적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장에서는 업무 시간이 절약된다고 생산성이 그만큼 오르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고 한다.

현 팀장은 기업이 AI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소로 '데이터 축적'을 제시했다. 기업의 데이터를 거대언어모델(LLM)을 활용해 위키백과처럼 주제별 문서로 정리한 뒤, 이를 재사용하고 축적해야 한다.

업무 프로세스도 AI 에이전트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조민선 기자 msjo@